

2026년
통권 제47호



+ 입법정보

계간 세종 의정

|봄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SEJONG CITY COUNCIL

소통과 공감, 신뢰받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운영 미디어 채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SEJONG CITY COUNCIL



누리집

<https://council.sejong.go.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councilsejong>



유튜브

<https://www.youtube.com/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0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2026.3.11(수)~3.23.(월) 13일간



블로그

<https://blog.naver.com/sejongcitycouncil/>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sejongcouncil>

제103회 임시회 개회사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민호 시장님과 구연희 교육감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임채성입니다.



개회에 앞서, 민주화의 거목으로서 우리 세종시 발전의 초석을 다지시고 세종시 국회의원을 두 차례 역임하신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의 명복을 깊이 기원합니다.

또한, 많은 시민이 고인의 뜻을 기리며 애도의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합동분향소를 마련해 주신 최민호 시장님과 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새해를 맞아 열리는 올해 첫 회기는, 단순히 한 해를 시작하는 자리를 넘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향한 우리의 방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그동안 준비해 온 과제들을 정리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세종시는 지금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큰 목표 아래, 이제는 말보다 실행이, 계획보다 성과가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 무게를 우리 모두가 함께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의회 사자성어로 정한 ‘승풍파랑’은 거창한 표현이라기보다, 지금 우리의 상황을 가장 잘 담아낸 말이라고 봅니다. 주변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그 흐름을 피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읽고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최근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광주·전남 역시 통합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도 이에 맞춰 통합하는 지방정부에 대해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와 파격적인 특례,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 세종시 역시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가 더욱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세종시법 개정을 비롯한 제도 개선을 통해 행정수도에 걸맞은 특례를 확보하고,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의 책임 있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시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올해 6월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선거는 피할 수 없는 일정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추진 중인 일들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쌓아온 정책과 사업들이 선거를 이유로 흔들리거나 지연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제4기 세종시정과 교육행정의 마무리를 책임 있게 해내고, 제5기 시정과 교육행정은 그 위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까지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2026년 세종의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올해는 의회도, 집행부도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더 잘 해야 하는 해입니다.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면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한 걸음 더 고민하고, 한 발 더 움직였으면 합니다.

2026년이 지나고 나서 ‘그때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 ‘그때 흔들리지 않고 잘해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올 한 해 함께 책임 있게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의회 역시 집행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시민을 위한 선택이 무엇인지 끝까지 고민하고,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다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 등 올 한 해 세종시정과 교육행정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어느 때보다 세심하게 살피시고, 좋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올 한 해, 승풍파랑의 마음으로 세종의 다음 단계를 함께 준비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28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임채성**

+ 입법정보

계간 세종의정

|봄호|

2026년 통권 제47호

발행일 | 2026년 3월 19일

발행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행인 | 임채성 의장

제작부서 | 홍보기획팀



QR코드를 스캔하시면
계간 『세종의정』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표지 이야기

겨울이 만든 여백이 다시금 채워지고 있다. 추위를 견어내는 데에는 벚꽃잎만큼 좋은 것이 없다. 봄의 연장延長은 서늘했던 나무 사이를 빼곡히 사로잡고 하늘을 가릴 만큼 존재감을 뽐낸다. 꽃이 흐드러질수록 봄기운은 더 왕성해진다. 모든 것을 시작하는 시간, 제4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도 마지막 봄나들이 준비에 나선다. 매 계절 시민을 향해 기울인 노력이 다시금 봄 벚꽃처럼 세종의 일부로 피어난다. 여백 한 점 없이 봄을 채운 벚꽃으로 세종시의회 2026년 봄을 열어보자.

목차

04 개회사

08 의정포커스

12 결의안

18 주요안건 처리현황

25 청소년 의회교실 소감문 수상작

32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활동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

미래전략수도완성 특별위원회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와 지속 가능한 크린넷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48 5분 자유발언

57 긴급현안질문

61 시정질문

62 의인탐구

66 세종스케치

70 의회성과노트

71 세종에서 놀자, 쉬자

72 의정주요뉴스

74 입법정보

90 의회 홍보채널 안내



세종시의회, 제102회 정례회 마무리

Focus1

김현미, 김현옥, 유인호, 안신일, 박란희, 김재형 의원 5분 자유발언
김현미 의원, '세종시 재정 전반에 관한 긴급현안질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025년 11월 11일 제102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월 15일까지 35일간 회기를 진행했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최근 전해진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 소식은 행정수도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지는 매우 반가운 성과였다”며,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는 이러한 성과가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고 세심하게 챙겨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현미·김현옥·유인호·안신일·박란화·김재형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김현미 의원이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시 재정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향후 재정 건전성 및 투명성 강화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는 등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11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현정 의원이 ‘금남면 영대리 미군병사 구조 사건’ 검증 부실을 지적하며 행정 신뢰성 강화를 촉구하는 시정질의를 진행했고, 같은 달 25일 이어진 제3차 본회의에서는 김효숙 의원이 학생들의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했다.

아울러 이날은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9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이어 2025년 12월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예산안 등 총 8개 안건을 처리하고 35일간 이어졌던 2025년 마지막 회기를 마쳤다.

이날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는 최원석·홍나영·김재형·안신일·유인호·김현미 등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아울러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김현옥 의원은 조례 제정 이후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사업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기부 활성화를 위한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시청 및 교육청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세종특별자치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및 재정 특례 확대 촉구 결의안’, ‘세종시 체육 인재 육성 기반 구축 및 국립체육영재학교 세종시 설립 촉구 결의안’,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및 송·변전망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한 해를 마무리하는 폐회사에서 “이제 행정수도로 가는 길은 구호가 아닌 제도적, 법률적 진전을 갖춘 현실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으나 시민과 공직자가 힘을 모아 지금의 흐름을 이어간다면 2026년은 세종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변곡점의 해가 될 것”이라며 의정활동의 지를 다졌다.

세종시의회, 2026년 첫 임시회 개최

Focus2

10일간 올해 첫 회기 진행하며 새해 열어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026년 1월 28일 제103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월 6일까지 10일간 올해 첫 회기를 진행했다.

임채성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큰 목표 아래, 실행과 성과가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다”라며, “주변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그 흐름을 피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읽고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임 의장은 “제4기 세종시정과 교육행정의 마무리를 책임 있게 해내기 위해서 집행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며,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면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한 걸음 더 고민하고, 한 발 더 움직이겠다”고 밝혔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신일·이순열·홍나영·김현옥·김학서·이현정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과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무장애 통합 어린이놀이시설’ 법적 근거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제103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시청과 교육청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는 등 총 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어 세종시의회는 2월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동의안 등 47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종료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여미전·김영현·김현미·윤지성·유인호·최원석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과 의견을 제시했다. 김학서 의원은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시 북부권 활성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최종 의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5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치료형 교육기관 운영 민간 위탁(신규) 동의안’ 등 12건이다.

이와 함께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소방안전 교부세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김동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주요 거점 정류장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세종특별자치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및 재정 특례 확대 촉구 결의안’ 채택

김광운 의원 대표발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025년 12월 15일 열린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및 재정 특례 확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광역과 기초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자치단체인 세종시의 특수성이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에 반영되지 않아 발생하는 심각한 재정적 역차별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

세종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단층제 특수성을 인정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시행규칙 즉각 개정 및 기초 행정 수요 항목 전면 반영 ▲세종시법 개정을 통한 ‘정률제’ 도입 또는 별도 재정 특례 조항 신설 ▲일몰 예정인 재정

특례 연장 및 항구적 재정 안정화 대책 수립 등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광운 의원은 “현행 ‘지방교부세법’의 구조적 문제는 단순한 행정상의 미비를 넘어, 39만 세종시민에 대한 명백한 정치적 방치이자 평등권 침해”라며 “정부의 ‘특수성 일부 인정’이라는 미온적인 태도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재정 특례 확대와 산정체계 개편은 선택이 아닌, 지체할 수 없는 국가의 책무”라고 역설했다.

‘체육 인재 육성 기반 구축 및 국립체육영재학교 설립 촉구 결의안’ 채택

김현미 의원 대표발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김현미 의원이 2025년 12월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표발의한 ‘체육 인재 육성 기반 구축 및 국립체육영재학교 설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세종시 체육 인재들이 관외로 유출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체육중·고등학교와 국립체육영재학교를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전국 학교운동부 운영 학교는 지난 2012년 5천 281개에서 2022년 4천 114개로 감소했으며, 학업 병행의 어려움으로 방송통신고 진학을 선택하는 학생 선수가 2019년 115명에서 2022년 514명으로 급증했

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지역 체육 기반의 위기를 설명했다.

아울러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자 17개 광역 시도 중 유일하게 체육중·고등학교가 부재한 곳”이라며, “세종시를 국립체육영재학교 설립 우선협상 대상지로 지정하는 것이야말로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 행정”이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법안 통과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세종시가 우선협상 대상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확고한 이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및 송·변전망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 채택

안신일 의원 대표발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025년 12월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345kV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관련해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현재 한전이 추진 중인 해당 사업은 충남 계룡부터 천안까지 약 62km 구간에 초고압 송전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사업의 ‘최적경과대역’에는 세종시 금남면, 장군면, 전의면 등 9개 읍면동 52개 리(里)가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다.

안 의원은 특히 이번 사업의 본질이 수도권 전력 공급에 있음을 꼬집었다. 의회는 “표면적으로는 충청권 전력 보강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수도

권의 막대한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전력 수송로’ 확보 성격이 짙다”고 주장했다. “전기는 지방에서 생산하고 소비는 수도권에서 하는 기형적인 구조 속에서 비수도권이 ‘전력 식민지’로 전락하고 있다”며, “이는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주범”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결의안에는 ▲주민 동의 없는 송전선로 건설 계획 전면 재검토 및 주민 참여 의무화 ▲주거 밀집 및 자연경관 보전 지역 구간 전면 지중화 ▲수도권 중심 에너지 정책 폐기 및 전력 다소비 기업 지방 이전 유도 등을 정부와 한전에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무장애 통합 어린이놀이시설 법적 근거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

김현미 의원 대표발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026년 1월 28일 열린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장애 통합 어린이놀이시설 법적 근거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아동의 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현행 비장애아동 위주의 놀이터 환경과 경직된 안전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김현미 의원은 “2025년 12월 기준 세종시의 18세 미만 등록 장애인은 883명에 달하지만,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 공간은 ‘땀범벅 놀이터’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대다수 장애아동이 일상적인 놀이에서 소외돼 사회적 관계 형성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꼬집으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현행 안전기준이 비장애아동 위주로만 설계되어 있어, 정작 장애아동을 위한 통합 놀이기구를 설치하려 해도 법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경직된 규제 탓에 무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세종시의회는 국회와 정부를 향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심의 및 개정 ▲다양한 장애 유형을 고려한 통합 놀이기구 안전 인증 및 설치 가이드라인 수립 ▲무장애 통합 놀이터가 전국 모든 생활권으로 확산하도록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과 행정적 협력 체계 구축을 강력히 주문했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주요 거점 정류장 설치 촉구 결의안’ 채택

김동빈 의원 대표발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026년 2월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주요 거점 정류장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동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정부가 공개한 CTX 후보 노선 중 ‘세종터미널역 등 주요 거점 정류장 경유안’ 최종 확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결의문에서 고속버스와 철도의 유기적인 환승 체계를 기반으로 세종터미널역이 향후 행정수도 세종의 ‘사통팔달’ 관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정부의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역세권 개발

과 연계 교통의 중요성이 언급된 만큼, 역사 시설을 통해 균형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정부가 공개한 후보 노선 중 세종터미널역 등 주요 거점 정류장을 포함하여 최종안을 확정하고, 이를 국가적 책무로 인식하여 CTX 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민간투자사업 협상 시 공공성과 균형발전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한 실효성 있는 재원 조달 방안 또한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김현옥 의원 대표발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026년 2월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세종시가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와 유지, 관리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해당 장비를 통해 부과 및 징수되는 과태료 수입이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불합리한 재정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김현옥 의원은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교통단속 업무는 지방 사무로 전환됐지만, 수익 구조는 여전히 중앙집권적 틀에 머물러 있다”며, “지방은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

고, 국가는 수익을 독점하는 구조는 자치분권의 취지에 명백히 반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을 위한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자치경찰 사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자치경찰 특별회계’ 신설 ▲소방안전교부세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시설 확충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제102회 정례회 주요안건 처리현황



**용어
안내**

- 행정복지위원회: 행복위
- 산업건설위원회: 산건위
- 교육안전위원회: 교안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특위

제1차 본회의 | 2025. 11. 11. |

항	의안번호	발의(제출)자	안 건 명	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 심사결과
1	4848	김현미 의원 외 4명	세종시 재정 전반에 관한 긴급현안질문	-	-	-
2	4850	의장	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본회의	-	원안가결
3	4851	의장	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본회의	-	원안가결
4	4849	이현정 의원 외 3명	세종특별자치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본회의	-	원안가결
5	-	시장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	-	-	-
6	-	교육감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 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	-	-	-
7	-	시장/교육감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	-	-

제2차 본회의 | 2025. 11. 12. |

항	의안번호	발의(제출)자	안 건 명	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 심사결과
1	-	이현정 의원	시정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	-	-	-
2	-	의장	휴회의 건(2025.11.13.~11.24./12일간)	-	-	원안가결

제3차 본회의 | 2025. 11. 25. |

항	의안번호	발의(제출)자	안 건 명	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 심사결과
1	4847	김효숙 의원 외 17명	세종시 학생들의 이동권 보장 촉구에 관한 긴급현안질문	본회의	-	-
2	4794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3	4795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4	4796	시장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항	의안번호	발의(제출)자	안 건 명	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 심사결과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5	4797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6	4798	시장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7	4799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집현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8	4800	시장	세종시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9	4801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고흥암·당노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10	4817	이순열 의원 외 6명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11	4818	이현정 의원 외 11명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12	4820	유인호 의원 외 7명	세종특별자치시 충청광역연합 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13	4821	이순열 의원 외 11명	세종특별자치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14	4822	김현미 의원 외 7명	세종특별자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15	4823	김영현 의원 외 10명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	수정가결	수정가결
16	4824	김현미 의원 외 7명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17	4826	이순열 의원 외 7명	세종특별자치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행복위	수정가결	수정가결
18	4827	임채성 의원 외 6명	세종특별자치시 관계성 범죄등에 대한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19	4828	김현미 의원 외 8명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20	4829	이순열 의원 외 9명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21	4830	윤지성 의원 외 8명	세종특별자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22	4831	윤지성 의원 외 5명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23	4832	윤지성 의원 외 5명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24	4833	임채성 의원 외 5명	세종특별자치시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25	4853	행정복지 위원장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	-	원안가결
26	4802	시장	세종SB플라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27	4803	시장	세종국제기술교육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28	4804	시장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 합의각서 변경 체결 동의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항	의안번호	발의(제출)자	안 건 명	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 심사결과
				산건위	위원회 의견제시 가결	
29	4805	시장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산건위	위원회 의견제시 가결	위원회 의견제시 가결
30	4806	시장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31	4807	시장	세종미래전략산업펀드2호 조성 및 운영사무 공공위탁(신규) 동의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32	4808	시장	세종미래전략산업펀드2호 조성을 위한 투자진흥기금 출자 동의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33	4809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34	4810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35	4834	유인호 의원 외 6명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36	4835	임채성 의원 외 8명	세종특별자치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37	4836	김학서 의원 외 9명	세종특별자치시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산건위	수정가결	수정가결
38	4837	김현옥 의원 외 9명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단지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	수정가결	수정가결
39	4838	안신일 의원 외 12명	세종특별자치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40	4839	김광운 의원 외 11명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	수정가결	수정가결
41	4840	박란희 의원 외 6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42	4811	교육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안위	수정가결	수정가결
43	4812	교육감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안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44	4813	교육감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교안위	수정가결	수정가결
45	4841	이현정 의원 외 9명	세종특별자치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안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46	4842	박란희 의원 외 8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안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47	4843	윤지성 의원 외 8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안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48	4844	윤지성 의원 외 10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생생형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 및 인재 양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교안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49	4845	김학서 의원 외 8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안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50	4846	유인호 의원 외 8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교안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51	4791	시장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결특위	수정가결	수정가결

항	의안번호	발의(제출)자	안 건 명	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 심사결과
52	4793	시장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양성평등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고향사랑기금)	예결 특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53	4814	교육감	2025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결 특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54	4854	의장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본회의	-	원안가결
55	4855	의장	세종도시교통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본회의	-	원안가결
56	4856	의장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본회의	-	원안가결
57	4857	의장	(재)세종시문화관광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본회의	-	원안가결
58	4858	의장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본회의	-	원안가결
59	-	의장	휴회의 건(2025.11.26.~12.14./19일간)	본회의	-	원안가결

제4차 본회의 | 2025. 12. 15.

항	의안번호	발의(제출)자	안 건 명	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 심사결과
1	4852	김현옥 의원 외 6명	세종시 교육청 잔식(예비식) 기부 활성화 관련 집행부 및 교육청 대응방안에 관한 긴급현안질문	본회의	-	-
2	4860	김광운 의원 외 6명	세종특별자치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및 재정 특례 확대 촉구 결의안	행복위	원안 가결	원안가결
3	4861	김현미 의원 외 3명	세종시 체육 인재 육성 기반 구축 및 국립체육영재학교 세종시 설립 촉구 결의안	행복위	원안 가결	원안가결
4	4859	안신일 의원 외 16명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및 송·변전망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	산건위	원안 가결	원안가결
5	4790	시장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예결 특위	수정 가결	수정가결
6	4792	시장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예결 특위	원안 가결	원안가결
7	4815	교육감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결 특위	수정 가결	수정가결
8	4816	교육감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예결 특위	원안 가결	원안가결

제103회 임시회 주요안건 처리현황



제1차 본회의 | 2026. 1. 28.

항	의안번호	발의(제출)자	안 건 명	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 심사결과
1	4909	의장	제10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본회의	-	원안 가결
2	4910	의장	제10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본회의	-	원안 가결
3	4911	김현미 의원 외 7명	장애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무장애 통합 어린이놀이시설' 법적 근거 마련 촉구 결의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 가결
4	-	시장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	-	-
5	-	교육감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	-	-
6	-	의장	휴회의 건(2026.1.29.~2.5./8일간)	-	-	-

제2차 본회의 | 2026. 2. 6.

항	의안번호	발의(제출)자	안 건 명	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 심사결과
1	4908	김학서 의원 외 11명	정주에서 체류로, 생산에서 소비로... 세종시 북부권 활성화를 위한 4대 제언	본회의	-	
2	4862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3	4863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4	4864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	번안가결	번안가결
5	4865	시장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6	4866	시장	학대피해아동쉼터 행복꿈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7	4867	시장	세종점자도서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8	4868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항	의안번호	발의(제출)자	안건명	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 심사결과
9	4869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10	4870	시장	세종시민회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11	4871	시장	세종호수공원 문화휴게복합시설(송담관리전시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12	4875	김현미 의원 외 3명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13	4876	유인호 의원 외 8명	세종특별자치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14	4877	박란희 의원 외 8명	세종특별자치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15	4878	박란희 의원 외 4명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16	4880	최원석 의원 외 10명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17	4881	이순열 의원 외 5명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18	4882	이순열 의원 외 5명	세종특별자치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19	4883	홍나영 의원 외 11명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20	4884	홍나영 의원 외 7명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21	4885	이순열 의원 외 6명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22	4886	이순열 의원 외 9명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23	4887	이순열 의원 외 6명	세종특별자치시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24	4888	이순열 의원 외 9명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25	4889	김현미 의원 외 7명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26	4819	유인호 의원 외 5명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행복위	수정가결	수정가결
27	4890	여미전 의원 외 11명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28	4891	김광운 의원 외 9명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29	4892	김광운 의원 외 9명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항	의안번호	발의(제출)자	안 건 명	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 심사결과	
30	4893	임채성 의원 외 9명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31	4894	김현옥 의원 외 9명	세종특별자치시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32	4895	김광운 의원 외 7명	세종특별자치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33	4896	안신일 의원 외 14명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34	4897	김재형 의원 외 10명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산건위	수정가결	수정가결
35	4908	김현옥 외 11명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산건위	수정가결	수정가결
36	4912	김동빈 의원 외 5명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세종터미널역 설치 촉구 결의안	산건위	수정가결	수정가결
37	4872	교육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치료형 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교안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38	4873	교육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교안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39	4874	교육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교안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40	4898	윤지성 의원 외 11명	세종특별자치시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안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41	4899	윤지성 의원 외 13명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교안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42	4900	윤지성 의원 외 7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학 학습 프로그램 지원 조례안	교안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43	4901	윤지성 의원 외 7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영재교육 진흥 조례안	교안위	수정가결	수정가결
44	4902	이현정 의원 외 12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안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45	4903	윤지성 의원 외 9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교안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46	4904	김효숙 의원 외 13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안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47	4905	이현정 의원 외 9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안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48	4906	윤지성 의원 외 9명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교육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교안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2025 청소년 의회교실 소감문



최우수상

세종시의회에 대해 알게된 점

늘봄초등학교 4학년 임서이

2025년 9월 16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최원석 의원님께서 학교에 방문하셨다. 세종에 관해 알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관한 영상을 시청하였다. 우리가 “세종에는 왜 맥도날드가 없나요?”라고 질문했을 때 의원님께서 세종의 인구와 여러 문제로 인해 맥도날드가 들어올 수 없다고 쉽게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세종이 언제 만들어졌나요?”라는 질문을 했을 때 아직 다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2012년에 생겼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의회교실 과정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을 쉬운 말로 설명해 주셨다. ‘만화로 보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라는 책자를 통해 세종시 의회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세종시가 행정수도라는 점과 대통령실과 그에 관한 시설들이 세종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또한, 최원석 의원님께서 세종특별자치시 의원에 관한 내용을 알려 주셨다. 이를 통해 세종시에는 20명의 의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평소 세종에 큰 관심은 없었지만 청소년 의회교실로 인해 세종시의 새로운 점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쉽고 재미있는 설명을 통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사진으로 남기며 추억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해 모르고 신경 쓰지 않던 나에 대한 반성의 시간을 보냈다.





우수상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자 청소년 의회교실

참샘초등학교 6학년 양지우

6학년 친구들과 함께 청소년 의회교실 수업을 들었다. 이 시간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다. 지금부터 청소년 의회교실 수업의 장점과 개선해야 할 점을 설명해 보겠다.

첫째, 궁금한 것을 묻고 답하는 시간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었다. 시의원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셔서 전문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둘째, 의회 소개 영상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소개 영상의 내용이 6학년 1학기 사회 수업에 배웠던 내용과 같아 이해하기 쉬웠다.

셋째, 학생들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수업을 통해 많은 친구들이 '정치'라는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개선해야 할 점을 설명해 보겠다.

첫째, 궁금한 것을 묻고 답하는 시간을 늘렸으면 좋겠다. 이 시간을 늘린다면 친구들이 용기 내어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나의 주변 친구들 중 시간이 부족해 질문을 하지 못한 친구가 많았다. 모든 학생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시간을 늘렸으면 좋겠다.

둘째, 소개 영상을 시청한 뒤 시의원님의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 소개 영상만으로는 많은 내용을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렵다. 실제로 질문 중에 영상에 나왔던 내용에 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전문적인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내가 느낀 점과 다짐한 것을 설명해 보겠다. 이 시간을 통해 의회를 바라보는 나의 태도와 시선이 바뀌었다. 무관심했던 나의 태도가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태도로 바뀌었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계획이다. 시민들을 대표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시의원분들과 시민들과 함께 점차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는 우리 세종특별자치시가 자랑스럽다.

2025 청소년 의회교실 소감문



우수상

세종시의회를 다녀와서

보람초등학교 4학년 김지윤

오늘은 세종시의회에 방문하는 날이다. 친구들과 의회에 도착해 1층 자료실의 책을 구경하다 유인호 의원님을 만났다. 학교 횡단보도에서 만나던 분을 가까이서 보니 조금 긴장되었다. 의원님과 함께 의원님 방을 구경하며 질문도 하고 간식도 받았다. 잠시 후, 5분 발언을 시작한다고 해서 본회의장으로 갔다. 6가지 주제가 발표되었는데, 나는 그중 김호숙 의원님의 “냉온열의자 대신 비가림막을 설치하자”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왜냐하면 온열 의자는 겨울에는 효과가 있지만, 냉방 기능은 여름엔 별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냉온열 의자는 잘 고장 나고, 관리비가 비싸다고 한다. 비싼 냉온열 의자보다 비가림막 정류장과 온열 의자를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5분 발언을 들으며 사람들이 세종시에 이런 불만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의회 의원님들이 시민들 대신 목소리를 내 주시는 것이 대단해 보였다.

나는 회의에 참석한 의원님들이 정말 진지해 보여서 아무 말도 하면 안 될 것 같았고 나무망치를 두드릴 때는 소리가 너무 커서 깜짝 놀랐다. 회의 내용을 들으며 ‘의회가 몇 층까지 있을까? 의회에는 모두 몇 명의 직원과 또 몇 명의 의원님이 계실까?’라는 생각도 들었다. 오늘 의회 방문은 정말 뜻깊고 좋은 경험이었다. 왜냐하면 세종시 지역 문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의회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도 앞으로 지역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좋은 방법을 생각하는 학생이 되어야겠다.



우수상

찾아가는 의회교실

참샘초등학교 6학년 이하진

이번 '청소년 의회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의원을 만나지 못해 풀리지 않았던 궁금한 점 등을 물어볼 수 있었다. 특히 의원님이 우리 학교의 학부모라는 점을 통해 왠지 모를 친근감을 느껴 궁금했던 점을 불편하지 않고 편하게 말할 수 있었다. 또 약간의 정치적 성향이 드러날 수 있는 곤란한 질문에서도 다양한 또 새로운 관점에서 질문을 바라보며 다소 의도가 섞인 질문에도 진심으로 대답해 주셨다.

나에게 제일 인상 깊고 기억에 남았던 부분은 'Q&A'이지만 이외에도 세종시 의회를 소개해 주시기도 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주요 기관들이 왜 필요한지, 또 무슨 일을 하는지 자세히 그리고 열심히 설명해 주셨다. 또 미래에 세종시 기관들의 노력으로 어떤 세종이 탄생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다.

의원님의 설명 중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하며 아이들을 수업에 몰입시킨 뒤 자신의 행동 중 후회하는 점을 아이들에게 교훈처럼 전해 주신 점이다. 아이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포인트를 잘 알고 계셔 놀랐기 때문이다.

이런 '청소년 의회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의원님을 만나 많은 교훈과 그동안 풀리지 않은 의원에 대한 궁금증이 풀렸다. 그러므로 이번 프로그램은 아주 좋은 기획이었다.



2025 청소년 의회교실 소감문


장려상
의회교실이 준 희망
참샘초등학교 6학년 김현원

2025년 7월 21일 월요일, 처음으로 '의회 교실'이라는 수업을 들었다. 원래 나는 정치에 딱히 관심이 없어서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다. 우리 반이 6학년 중 가장 늦게 들어갔는데, 내 번호가 제일 늦어서 가장 뒤에 앉았다. 많이 움직이지 않아도 선생님과 스크린 모두 잘 보였지만, 맨 뒤쪽에 앉는 게 딱히 좋지도 않았고, 강의해 주시는 선생님도 뒤쪽은 잘 안 쳐다봐 주셔서 질문을 하기 좀 눈치 보였다.

그러나, 수업 내용은 매우 만족스러울 정도로 재미있었다. 선생님의 말투나 표정, 행동 등에서는 열정이 가득했고, 왠지 친근한 느낌까지 났다. 그 덕분인지 수업을 더욱더 열심히 들으려 노력하는 내 자신이 보였다.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아이들의 표정이나 얼굴을 보진 못했지만, 괜히 뒤돌아보거나 장난치는 아이 하나 없이 모두 정면을 응시하는 걸로 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다 이 수업을 즐기는 눈치였다.

우리나라는 독재 형태가 아닌, 여러 도시에 있는 시의원,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의원,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 등등이 권력을 나누어 다스리는 형태이다. 그리고 그중 우리는 시의원에 대해 배웠다. 시의원이란 하나의 시에 사는 주민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과 같이 투표로 뽑힌 사람이 시의원을 할 수 있다. 나는 지금까지 의원 중에는 국회의원밖에 없는 줄 알고 있었기에 꽤 놀랐다.

선생님께서서는 내가 살고 있는 세종시의 시의원이다. 선생님께서는 참샘초등학교가 세종시에서 제일 좋아하시는 학교라고 하셨다. 내가 다니는 학교여서 그런지 선생님이 더 좋아졌다. 선생님께서 어릴 때 나서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평범한 아이였지만, 지금은 어엿한 어른이 되셨다고 하셨다.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대단한 어른이 될 거라고 응원해 주셨다. 나도 선생님처럼 나의 꿈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장려상

청소년 의회교실 2번째 방문

전동초등학교 6학년 용하정

이번에 2번째로 청소년 의회교실에 방문을 했습니다. 1번째와 다르게 이번에는 의장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이라 긴장해서 떨렸었지만 옆에 계신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잘 알려 주셔서 재미있고 흥미롭게 체험을 했습니다. 영상이나 글로 보는 것이 아닌 직접 체험을 하니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의장인 것 같아서 다 하고 나니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의사봉도 사용해 보고 마이크에 대고 친구들과 선생님 앞에서 이야기도 해 보았는데 떨리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기회가 또 있나 싶어서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청소년 의회교실에서 친구들이 직접 쓴 글을 바탕으로 쓰레기통 설치, 전동 킥보드 주차 문제를 주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주제가 실제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어서 그런지 진지하게 참여하게 되었고 진짜로 사회에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장 체험을 하면서 몇 시간 동안만 했는데도 서 있기 힘들었는데 실제로 이 일을 하는 분들은 여러 번 이 일을 할 것을 생각하니 정말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소년 의회교실이 좋은 점은 가장 먼저 실제로 시의원분들이 사용하는 공간에 가서 우리가 직접 가서 체험한다는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리고 퀴즈도 내 주시고 발표할 기회도 주셨는데 공부하는 것처럼 억지로 가서 체험하는 것이 아닌 웃으면서 하여 지루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체험하면서 시의원과의 의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재미있고 자세하게 배워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체험을 하면서 '지루하다', '재미없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에서도 이 체험을 꼭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5 청소년 의회교실 소감문


장려상
특별한 추억
전동초등학교 6학년 김태인

안녕하세요! 1학기 때 모의의회 체험을 다녀온 학생입니다. 학교에서 모의의회 체험을 간다는 말과 동시에 자기가 무슨 역할을 맡을지 정하라고 해서 자유 발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안건 사안을 생각하고 쓰라는 말에 막막했습니다. 고민을 하다 보니 도시는 계속 발전 중인데 시골은 그 흔한 편의점이 없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도시와 시골의 양극화’라는 제목을 쓰고 글에 내 생각을 담으며 글을 쓰는데, 내가 진짜 의원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어색함과 동시에 좀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모의의회에 도착한 날 기대 반, 떨림 반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상으로만 본 장소에 내가 있다니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의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 퀴즈를 통해 알려 주시고, 쉽게 설명해 주셔서 지루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자신이 쓴 글을 읽으며 의원님들처럼 회의를 하는데 발음도 엉망이었지만 ‘나는 지금 2분 자유 발언을 하는 의원이다.’라고 생각하니 긴장도 풀리면서 재밌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쓴 글을 듣고 투표하는 것까지 체험할 수 있어서 이런 세세한 것까지 체험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런 체험은 주변에서 흔하게 접할 수 없는 체험인데, 사회 시간에서만 본 장면을 실제로 내가 해 보니 신기하고, 내가 진짜 의원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 의회에 올 땐 무섭고 어색했지만 안 왔으면 후회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의원님들이 여기서 회의를 하는 장소라고 들었을 때는 내가 진짜 의원이 된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체험학습은 제 특별한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활동

- 33 의회운영위원회
- 35 행정복지위원회
- 37 산업건설위원회
- 39 교육안전위원회
- 4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43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 44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
- 45 미래전략수도완성 특별위원회
- 46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와 지속 가능한
크린넷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 47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김영현 위원장



최원석 부위원장



안신일 위원



이현정 위원



홍나영 위원



2025년 11월 25일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하반기 제3차 정기회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 개최

의회운영위원회는 2025년 11월 25일 세종공동캠퍼스 학술문화정보센터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하반기 제3차 정기회를 주관하여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12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및 관계 공무원 등 70여 명이 자리했다. 이 자리에는 임채성 의장, 김하균 행정부시장, 구연희 부교육감도 참석해 세종시에서 열린 정기회 개최를 축하했다.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공유를 통한 혁신, 학문과 산업의 융합을 구현하는 이곳 세종공동캠퍼스의 시너지 창출 사례처럼, 광역의회는 협업과 공유, 융합을 도모하며 지방시대의 미래 비전을 이끌어나가는 선도 그룹으로 성장해야 한다”면서 광역의회의 위상과 역량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전국 시도의회에서 제출한 총 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그 중 김영현 위원장이 제출한 ‘지방균형발전 예산의 실질적 자율성 강화와 국책사업의 국가책임 유지를 위한 건의안’은 세종공동캠퍼스와 같은 국책사업에 투입되는 지방 재원의 부담을 줄이고, 국비 투자의 안정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102회 정례회 마지막 회의 개최

의회운영위원회는 2025년 12월 12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 및 '2025년도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모두 원안가결했다.

2025년도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은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활동한 5개 연구모임의 활동 결과와 관련해 활동 계획과의 적합성, 활동비 집행의 적정성, 연구활동의 성과 등을 심의하여 모두 승인하였다.

끝으로 김영현 위원장은 “시의성 있는 다양한 주제의 연구과제를 목적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해 이끌어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세종시의회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체감도 높은 방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2025년 12월 12일 제102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4차 회의_김영현 위원장



2026년 1월 30일 제10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의회운영위원회는 2026년 1월 30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의회사무처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업무계획 청취에 앞서 지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됐던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을 가결했다.

이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의회사무처 주요업무계획 전반을 점검하고 보고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4대 의회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한 준비와 제5대 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계획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김영현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신설안을 마련할 때는 제5대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위원회별 집행부서 소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위원회별 사업소는 관련 국에 맞춰 소관을 정하는 것이 업무 연관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사무처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과중한 데 인력 증원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향후 인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제5대 의회 개원을 대비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충수 확대 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위원장



김영현 부위원장



김충식 위원



여미진 위원



이순열 위원



홍나영 위원



2025년 12월 1일 제102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

2026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 마무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제102회 정례회 기간 중 2025년 11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고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했다.

이날 행정복지위원회는 1조 2,523억 5,896만원 규모로 편성된 2026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17개 사업에서 159억 867만 8천원을 증액하고, 34개 사업에서 159억 867만 8천원을 감액하며 예산안을 수정의결했다. 2026년 세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회의를 마무리하며 김현미 위원장은 “이번 예산안은 약 20% 범위에서 감액과 증액 조정을 진행했다”며 “신규, 행사성 사업의 구조 조정을 우선 검토하는 한편, 법정 의무지출임에도 지방비 확보가 미흡했던 보건복지국 소관 생계급여 예산을 증액해 반영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민생과 직결된 사업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신중하게 심사했다고 밝혔다.



‘발달장애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간담회 공동 개최



2026년 1월 9일 '발달장애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간담회

행정복지위원회와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은 2026년 1월 9일 '발달장애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공동 개최하고, 양육자들이 겪는 현실적인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과 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위원장, 김영현 부위원장, 이순열·홍나영·김충식위원을 비롯해 다다움협동조합 관계자 및 발달장애 아동 양육자, 세종시청 및 교육청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돌봄교실 우선순위가 맞벌이·다문화 가정 이후로 밀리는 장애 가정의 현실 ▲단순 케어를 넘어선 '생존 기술(자립) 교육의 부재 ▲특수교육 실무사 배치 누락 문제 등 발달장애 가족이 마주하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양육자의 경험을 토대로 공론화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종민 의원은 “오늘 제기된 문제 중 집행부 차원에서 당장 개선 가능한 사안은 즉시 점검하고, 활동지원사 가족 급여 문제나 자립 주택 등 제도적 과제는 국회에서 입법과 정책으로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국가의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이 2041년으로 잡혀있지만, 세종시는 그보다 앞서 선도적으로 지역사회 전환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누락 문제 등 당장 해결해야 할 현안은 즉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청취



2026년 2월 4일 제103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김현미 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는 제10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2026년 2월 2일부터 5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상임위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행정복지위원회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정책 및 사업 추진 계획을 면밀히 점검하고, 정책 실효성과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논의를 이어갔다.

위원들은 ▲마을계획 및 주민제안사업 지속성 도모 ▲고향기부제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 ▲출자·출연기관 인사 및 예산 관련 시의 관리·감독 책임 강화 ▲시의 특수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주거 지원책 마련 ▲보통교부세 확보 노력 ▲하도급지킴이 운영을 통한 대금 지급의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정책 제언들이 실제 시정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 증진과 행정 내실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형 위원장



최원석 부위원장



김광운 위원



김학서 위원



김현옥 위원



김효숙 위원



안신일 위원



2025년 11월 24일 제102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청취

산업건설위원회는 제102회 정례회 기간인 2025년 11월 21일과 24일 이틀 동안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청취했다.

이날 최원석 부위원장은 '대전·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세종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대전시와의 협력 강화를 주문했고, 김광운 의원은 '충청권 초광역 도심항공교통(UAM) 용역'과 관련해, 기체 유지보수정비소 선제적 입지 확보 등 세종시만의 차별화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학서 의원은 세종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 중장기 계획(Road map)' 수립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해외 판로 확대 등 구체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현옥 의원은 공동주택 설계기준 개정으로 한글·정원 의무 특화 분야가 마련되었지만, 이는 공사비 증가로 이어져 분양가 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효숙 의원은 골목형 상점가 확대 지정이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가맹점으로 등록되는 등의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그치지 않고, 지정 이후 상인회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으며, 안신일 의원은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와 관련해 장군면 등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고 그 과정을 시민들에게 전달할 것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 방침(450조원)'과 관련된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세종시의 적극적인 기업 유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북송아 축제에서 발생한 무더위 대응 문제를 언급하며 여름철 행사에 맞춰 야간 경관 행사 등 새로운 방향으로 지역 축제 운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산업건설위원들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줄 것을 집행부에 요청하며, 부족한 부분은 2026년도 사업에 반영되어 개선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2026년 2월 4일 제10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_김재형 위원장

2026년 예산안 예비 심사 완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102회 정례회 기간 중, 2025년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8일간 진행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며 2025년 예정되었던 공식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6억 4,294만 1천원 감액된 3,174억 6,233만 2천원으로 편성,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01억 9,753만 7천원 감액된 6,447억 1,631만 원으로 편성, 제출됐다.

계수조정 결과, 세입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세출예산은 투자유치자문관 운영 등 18개 사업에서 감액, 농식품 소비정책 강화사업 등 21개 사업에서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됐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청취

산업건설위원회는 2026년 2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제103회 임시회 제2~4차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했다. 위원들은 사업별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과 대안을 중심으로 질의했다.

위원들은 회의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 중심의 편중을 지양한 기존 핵심사업 방향성 유지 ▲도시가스 보급 기준 완화 검토 필요성 제기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 다양화와 판로 확대 제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관련 찾아가는 상담 창구 운영 ▲중대형 상가의 공실을 문제 해결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현장 점검 제언 ▲시 우수 건축자산의 관광자원 적극 활용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기능 강화로 창업 전·영업 중·폐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등 다양한 문제를 논의하고 방안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4일 회의를 마무리하며 “제4대 의회 남은 임기 동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현장 중심의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교육안전위원회



윤지성 위원장



이현정 부위원장



김동빈 위원



박란희 위원



유인호 위원



2025년 11월 28일 제102회 정례회 교육안전위원회 제7차 회의_윤지성 위원장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교육안전위원회는 2025년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제5~8차 회의를 열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했다. 특히 이번 심사는 치열한 논의 끝에 기존 7차에서 8차로 차수를 연장하여 다음 날 아침까지 진행되었다.

이번 회의에서 교육안전위원회는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했다.

세종시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 세출규모는 전년도 대비 16억 9,857만원(0.1%)이 감소한 1조 1,817억 2,336만원으로, 인적자원 운용 등에서 389억 2,742만원 감액 편성 요구되었고, 학교재정지원관리 등에서 372억 2,885만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어 제출되었다.

제출된 2026년도 세종시교육청 본예산안에 대하여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교육청과의 논의를 통해 교육과정운영지원 사업 등에서 9억 2,814만 9천원을 감액하고, 학생안전관리 사업 등에서 9억 2,814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수정가결했다.





2025년 12월 2일 세종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간담회

세종시교육청과의 교육현안 간담회 가져

교육안전위원회는 2025년 12월 2일, 세종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 전체와 구연희 세종시교육청 교육감 권한대행, 교육국장, 행정국장, 정책국장, 소통담당관, 미래기획관이 함께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교육감 권한대행 체제와 관련하여 세종시교육청 업무 추진 및 현안 처리 상황과 교육감 부재로 파생될 수 있는 교육 난점을 파악하고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교육행정 공백 방지를 위한 권한대행의 운영 체계 및 대응 계획 ▲교육정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추진 관리 방안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주요사업 지속 추진 방안 ▲교육청 내부 구성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부 소통 체계와 직원 관리 세부 계획 ▲학생·학부모·학교 등 교육공동체 소통 공백 방지 대외 소통 전략 ▲학교 신설, 통학권 정비, 미래학교 등 주요 사업 추진 현황 ▲교육감 부재 기간 동안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 집행 관리 방안 등의 필요성을 제언하며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다.



2026년 2월 4일 제103회 임시회 교육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

제103회 임시회 제3차 회의, 조례안과 동의안 등 12건 심사

교육안전위원회는 2026년 2월 4일 제103회 임시회 교육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9건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동의안 3건, 전체 12건을 심사했다.

이번 회의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치료형 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등 3건은 원안가결됐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영재교육 진흥 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윤지성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이번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들은 시민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더욱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소중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효성 있는 정책이 교육 현장과 시민의 삶 속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미전 위원장



김학서 부위원장



김광운 위원



김현옥 위원



김효숙 위원



박란희 위원



안신일 위원



유인호 위원



홍나영 위원



2025년 11월 19일 제10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사교육청 2025년도 추경예산안 등 심사 마무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02회 정례회 기간 중 2025년 11월 18일부터 19일 까지 양일간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5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안을 심사했다.

이번에 심사한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2%(705억원) 증가한 2조 2,838억원으로, 일부 세출 사업의 재원 표기를 정정하기 위해 수정가결되었다. 제출된 예산안의 금액 자체에는 변동이 없다.

세종시의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기정 2,969억 6,000만원 규모에서 양성 평등기금 등 3개 기금을 조정하여 2억 4,600만원을 증액하는 변경안이 제출되었으며, 심사 결과 원안가결되었다.

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통교부금 등 세입 감소를 반영하고, '인건비', '예비비' 등 세출 불용액을 감액한 것으로, 기정예산 1조 2,210억원 대비 0.6%(73억원) 줄어든 1조 2,138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심사 결과 원안가결되었다.

여미전 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올해 예산을 마무리하는 단계다. 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불용예산을 정리해 꼭 필요한 사업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며, "편성된 예산이 연내에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청 예산안 심사 회의를 진행한 김학서 부위원장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감소 등으로 교육재정 여건이 어려운 만큼, 예산을 더 신중하게 편성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 아이들의 성장과 배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사·교육청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2025년 12월 8일 제10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_여미전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02회 정례회 기간 중 2025년 12월 4일부터 14일까지 9일간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와 교육청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이번에 심사한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1%(1,013억원) 증가한 2조 829억원이다. 예산결산위원회는 심사 결과 일반회계 중 세입 국고보조금 3천 7백만원을 감액했고, 세출에서는 '의정 백서 제작' 등 총 37개 사업에서 13억원을 감액하고 내부유보금을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했다. 특별회계는 교통사업에서 2천만원, 소방에서 56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내부유보금을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했다. 세종시가 제출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4개 기금의 2026년도말 조성액이 전

년 대비 0.01%(9천만원) 감소한 6,493억원으로 원안가결되었다.

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0.1%(17억원) 감소한 1조 1,817억원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사 결과 세출예산안 중 '통학로 안전지킴이 지원' 사업 등 49건에서 10억원을 증액했고, '노후 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 사업 등 288건에서 10억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했다.

교육청의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2개 기금의 2026년도말 조성액이 전년 대비 67.0%(1,636억원) 감소한 807억원으로 원안가결되었다.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김재형 위원장



유인호 부위원장



김동빈 위원



김영현 위원



김현옥 위원



김효숙 위원



박란희 위원



윤지성 위원



이현정 위원



공공시설물 인수특위, 공식 활동 성공적 마무리

제5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이하 '인수특위')가 2026년 3월 12일 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제8차 회의를 열고, 그간의 활동을 종합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공식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인수특위는 활동 기간 동안 총 7회의 회의와 6회의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공공시설물 인수와 관련된 전(全) 과정을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하자 없는 시설물 인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특히 시설 완성도와 안전관리, 운영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했다.

주요 현장 점검 대상은 ▲나성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반곡동 광역복지지원센터 ▲소담동·어진동 환승주차장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시민 이용이 많은 시설이다.

이번 회의에는 공공시설물 인수 업무에 협력한 송인호 도시주택국장과 원성진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단지사업처장이 참석해, 앞으로도 공공시설물의 원활한 인수와 관리를 위해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회의를 마치며 하자 최소화와 원활한 공공시설물 인수를 위해 협력한 집행부·관계기관·시민참여점검반에 감사를 전하고,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 행복도시 공용건축물 재원 분담률(시비 50%)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



김현미 위원장



안신일 부위원장



김동빈 위원



김영현 위원



김재형 위원



김충식 위원



김학서 위원



박란희 위원



여미진 위원



최원석 위원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 마지막 회의 개최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는 2026년 3월 4일 의회 청사에서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대회 준비 추진상황을 점검한 뒤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며 특위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회 준비 현황 보고에 이어 선수촌 운영, 대회 홍보, 지역 연계 행사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와 정책 제언이 이어졌다.

여미진 의원은 “선수촌 시설뿐만 아니라 소방 안전, 급식 운영 등 선수 생활 전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최원석 의원은 “대회를 통해 기대했던 인프라 확충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이제는 대회의 본질인 ‘대학생 스포츠 교류’와 국제 청년 교류라는 가치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란희 의원은 차량 확보와 예산 계획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당부하며 “대회 기간에 세종시 전역이 축제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읍면동 자원을 활용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특위 활동을 마무리하며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다양한 의견과 정책 제언이 제시됐다”며 “논의된 사항들이 대회 준비 과정에 충실히 반영되어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래전략수도완성 특별위원회



김동빈 위원장



이현정 부위원장



김광운 위원



김충식 위원



김효숙 위원



안신일 위원



여미진 위원



윤지성 위원



미래전략수도완성특위,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으로 공식 활동 마무리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이하 미래특위)는 2026년 3월 12일 의회 청사에서 제8차 회의를 열고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며 약 3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구성 초기 국회세종지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된 광범위한 과제에 대하여 논의하고 해결책을 제시한 미래특위는 2024년 하반기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가 별도 구성됨에 따라 역할을 재정립했다.

또한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유치 ▲KTX 세종역 신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조기 추진 ▲세종~청주 고속도로 조기 개통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세종시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5대 핵심 과제로 활동 방향을 전환했다.

미래특위는 이날 활동결과 보고서를 통해 CTX 후속 절차 철저 이행 등 5개로 향후 과제 등 정책제언을 제시했다.

김동빈 위원장은 "공식적인 특위 활동은 마무리되지만, 5대 과제는 세종시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사안"이라며 "특위 종료 이후에도 의회는 상임위원회를 통해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정책제언과 예산 심의를 통해 집행부의 추진 동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와 지속 가능한 크린넷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김현옥 위원장



윤지성 부위원장



김영현 위원



김충식 위원



김현미 위원



안신일 위원



이현정 위원



크린넷 운영 특별위원회, 약 2년 간의 활동 종료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와 지속 가능한 크린넷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크린넷특위)는 2026년 3월 12일 제3차 회의에서 '크린넷 운영 관련 법제화의 필수성'을 담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크린넷특위는 세종시 크린넷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24년 6월 21일 구성됐다. 활동 기간 동안 ▲제1~3차 특별위원회 회의 ▲인천 청라지구 크린넷 사용 실태 현장 방문 ▲관내 집하장 운영 실태 점검 ▲크린넷의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5분 자유발언 ▲크린넷 현안 해결을 위한 시민 참여 토론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입법 촉구 간담회 ▲크린넷 재정 지원 및 제도 정비 등에 관한 법제화 촉구 국회 기자회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날 크린넷특위 회의를 진행한 김현옥 위원장은 “앞으로도 세종시의회는 시와 함께 크린넷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정책 모니터링과 지원 방안을 탐구할 것”이라는 향후 계획을 알리며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꼭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박란희 위원장



안신일 부위원장



김재형 위원



김종식 위원



김현미 위원



김효숙 위원



여미진 위원



유인호 위원



윤지성 위원



이순열 위원



‘흔들림 없는 행정수도 완성과 행정수도 특별법 조속 처리’ 촉구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행수특위)는 2026년 3월 11일 마지막 회의를 개최하며 ‘흔들림 없는 행정수도 완성과 행정수도 특별법의 조속 처리’를 촉구하고 그동안의 활동을 정리한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행수특위는 구성 이후 ▲강준현·김종민·김민석 국회의원과외 정책간담회를 통한 국회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집무실 조속 건립 촉구 ▲‘국토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실행계획 발표 촉구 결의안’ 의결 ▲차기 대통령 세종 집무 이행·대법원 세종 이전 등 현안별 논평 발표 ▲균형발전 정책포럼 「행정수도의 미래를 설계하다」 개최 및 시민사회 공동선언문 채택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론화와 여론 형성에 적극 앞장서 왔다.

특위는 공식 활동을 마무리하면서도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지원, 세종시법 전면 개정 추진 등 아직 완수되지 않은 과제들이 남아 있음을 강조하며,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발걸음은 계속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박란희 위원장은 “부처 이전 논란이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근본 원인은 행정수도에 대한 헌법과 법률의 근거 부족”이라며 “현 정부의 강한 의지로 추진되고 있는 행정수도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등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만이 이 모든 논란을 해결할 유일한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5분 자유발언 · 긴급현안질문 · 시정질문

49	5분 자유발언 - 제102회 정례회
54	5분 자유발언 - 제103회 임시회
57	긴급현안질문 - 제102회 정례회
60	긴급현안질문 - 제103회 임시회
61	시정질문 - 제102회 정례회



제10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김현옥 의원
새롬동, 더불어민주당



“트라우마 속에 남겨진 사람들, 함께 회복의 길 걷는 세종시 되어야”

김현옥 의원은 자살 현장의 초기 대응자에 대한 ‘트라우마 회복 지원체계’ 구축을 시에 강력히 요청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는 고층 아파트 밀집도가 높아 ‘투신’으로 인한 자살 비율이 높다”며, “시민이나 입주민, 관리소 직원이 참혹한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초기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어 “트라우마를 겪는 대응자와 목격자에 대한 회복 지원 제도가 미흡한 상황에서 대부분이 개인의 힘으로 극심한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며, “현재 세종시 자살 예방정책은 ‘사전예방’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직업트라우마센터’를 언급하며, 업무 중 재해나 자살 등 충격적인 사건을 목격한 근로자들의 심리적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 세종시도 지원 인프라를 확충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세종시에 아직 설치되지 않은 ‘자살예방센터’의 조속한 설립을 요청하며, “상담, 치료, 사후관리 등 전 과정을 포괄하는 통합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10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박란희 의원
다정동, 더불어민주당



미래세대를 위한 청소년 정책 전환 촉구

박란희 의원은 “세종시의 미래 자산인 청소년이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아동, 청소년 정책의 근본적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며 조직 강화와 예산 확대를 통한 청소년 정책 혁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2024년 기준 세종시의 청소년 인구(9세~24세)는 약 7만 8천명이다. 이는 전체 인구의 19.9%에 달하며 전국 1위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2025년 본예산 기준, 청소년 관련 예산액은 전년도 46억 4천만원보다 6.89%나 삭감된 43억 2천만원이었다”고 비판하며 “2026년 본예산안에서도 청소년 예산은 44억 2천만원으로 전체 예산 증감률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2024년 수준조차 회복하지 못했다. 청소년 예산은 당장의 부담이 아니라 세종의 미래를 이어갈 희망의 씨앗”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란희 의원은 “청소년을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 세종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갈 시민으로 인식해야 한다. 조직과 예산 등 정책 기조 전반을 정비해 청소년 인구 1위 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안전하고 건강한 청소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제1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김광운 의원
조치원읍, 국민의힘



“북부권이 세종시의 천덕꾸러기인가!”

김광운 의원은 세종시의 심각한 남북 불균형과 북부권 소외의 처참한 현실을 고발하며, 즉각적인 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조 5천억원이 투입된 ‘청춘조치원 프로젝트’가 인구 10만 명의 경제 중심축을 만들겠다고 약속과 달리 실패로 귀결됐다”며 “조치원 인구는 2014년 4만 8천명에서 현재 4만 2천명으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부권의 예산과 개발계획은 언제나 후순위로 밀려나 있다”며, “같은 세종 시민임에도 북부권 주민들은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해결책으로 북부권의 행정적 분리를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최민호 시장이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던 바와 같이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행정구 설치’와 ‘구청 건립’을 조속히 이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며, 북부권의 완전한 자립과 부흥을 위해 ‘자치구 신설’까지 논의를 즉각 확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1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김효숙 의원
나성동, 더불어민주당



“완공된 독립정 역사문화공원, 도대체 언제 이용할 수 있나?”

김효숙 의원은 완공 이후에도 개방되지 못하고 있는 독립정 역사·문화공원과 관련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나성동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독립정 역사·문화공원이 지난해 4월 준공됐음에도 출입로마다 ‘출입 통제’ 장애물에 막혀 방치되고 있다. 나무가 기울어지고 난간이 변색하는 등 관리가 소홀하다”고 실태를 전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공원 인수 지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부담 문제에 대해 “정부와 풀어야 할 거시적 과제이지, 시민의 편익을 가로막는 변명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독립정 역사·문화공원 개방을 위한 방안으로 ▲인수 및 관리를 위한 ‘컨트롤 타워’ 일원화 ▲공원 개방에 필요한 필수 사항 선제적 마련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부담 완화 전담팀(TF)’ 구성 등을 제안했다.

또한 “완공된 공원을 막는 조치가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인수 완료 이전이라도 LH와 함께 공원 활용을 위한 안전 및 편의시설 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1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여미전 의원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지역화폐 여민전, 신뢰와 안정성 견비해 다시 태어나야 한다”

여미전 의원은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운영에 대해 제언했다.

여 의원은 이날 ‘여민전’이 지역 경제 활성화 플랫폼으로서 지속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불규칙한 발행 일정, 예산 의존성과 시스템 불안정성을 개선하고 시민이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여미전 의원은 먼저 운영과정의 투명성으로 신뢰도 상승을 도모한 경기도와 더욱 활용력 있게 생활화된 인천광역시 지역화폐 운영 사례를 언급하며 이에 반해 여민전은 정책 안정성과 데이터 공개성, 그리고 시민 체감도가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결 방안으로 ▲‘여민전 운영 실적 공개 조례’ 제정으로 관련 정보 공개 의무화 ▲‘상생가맹점’ 제도 시범 도입으로 가맹점의 자체 추가 혜택 1~2% 제공 ▲시는 행정과 다각화한 홍보로 여민전 지원 ▲지역 내 소비 회전을 데이터 공개로 지역화폐 매출 효과 시민 체감도 향상 등을 제안했다.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유인호 의원
보람동, 더불어민주당



“후퇴하는 시민주권… 시민특별자치시의 기반 흔들려”

유인호 의원 “세종시의 시민주권정책이 후퇴하고 있으며, 이는 특별자치시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유 의원은 “세종시가 출범 초기부터 지방민주주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선도하며 참여 거버넌스를 구축해 온 성과들이 제도 축소와 운영 중단으로 빠르게 약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시민추천제가 폐지되고 시민감동특별위원회가 사라지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의 제도가 위축,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치분권 특별회계의 편향된 예산 편성 문제를 지적하며 주민주도형 마을계획사업의 비중을 확대하고 현재 관치형 숙원사업 중심의 예산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또한 “정원도시, 문화도시, 스마트도시 등 세종시의 중점 추진 정책은 지방민주주의라는 토대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시민참여 없이 추진되는 도시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후퇴하는 시민주권정책을 시민 중심 행정으로 되돌리는 것이 특별자치시의 책무이자 당위성”이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윤지성 의원
연기·연동·연서면, 해밀동,
국민의힘



“세종 동 지역 학습격차 해소, AI기반 미래교육 혁신모델 도입해야”

윤지성 의원은 세종 동 지역 학교 간의 학습력 격차 해소와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위한 네 가지 혁신모델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학생 주도·자율 학습 환경 구축 및 학습동기 강화 ▲디지털·AI 기반 혁신교육 및 맞춤형 학습 지원 전면화 ▲탐구·융합형 프로젝트 확대 및 ‘세종이도 프로젝트’를 포함한 수학·과학·정보 중심의 융합 교실 운영 ▲학생이 문제를 설정하고 탐구하는 프로젝트형 수업 강화 ▲미래교육 인프라 조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세종시 내 학교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소규모 수업 모델로 ▲협동학습 모듈 방식 ▲AI 튜터 기반 맞춤형 학습 모델 ▲프로젝트 기반 탐구·실습 모델을 제안했다.

끝으로 윤지성 의원은 “세종 동 지역 학습력 향상은 결국 학생 주도와 선택 중심 교육, 디지털·AI 기반 맞춤형 지원, 탐구와 융합 중심 프로젝트, 온오프라인 학습 공동체라는 네 축을 통해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이순열 의원
도담·어진동, 더불어민주당



“특정 목적에 맞춘 행정 왜곡, 세종시 기본 시스템 무너졌다”

이순열 의원은 “특정 목적을 위해 과정이 왜곡되고, 책임 회피가 반복되는 세종시 행정의 난맥상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성숙한 행정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 행정에서는 최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생략하고 특정 목적에 맞춘 ‘끼워 맞추기’가 반복되고 있다”며 “책임 회피와 졸속 결정이 누적되면서 행정의 신뢰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8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최민호 시장이 중앙공원 파크골프장 검토를 지시한 직후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 즉각 움직인 점을 언급하며 “공단은 ‘시장 지시·관심사항’이라는 별도 체계를 통해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행정을 추진해 왔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이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 단체장의 지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하며 “중대한 사안일수록 감정적 반복이 아니라 장기적 로드맵과 객관적 기준에 기반한 일관된 결정이 필요하다”며 “시민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통해 투명한 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김재형 의원
고운동, 더불어민주당



방치된 교통신호제어 시스템 정상화 촉구

김재형 의원은 수년째 사실상 방치된 세종시 교통신호제어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신속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는 U-City 2단계 2차 사업을 통해 346개 교차로에 광자가망 기반 온라인 신호제어 시스템을 구축해 2020년 8월 LH로부터 이관받았다. 하지만 현재까지 센터 서버와 저장장치 노후화, 현장 신호제어기와 데이터 동기화 중단으로 시스템을 거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방치는 결국 출퇴근 시간대 심각한 교통정체를 야기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에도 도시통합정보센터가 즉시 신호 운영 전략을 적용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대안으로 ▲노후 서버·저장장치 교체와 단절된 광자가망 복구를 포함한 시스템 기술적 정상화 및 통합 운영체계 구축 ▲세종시·경찰청·도로교통공단·유지보수 업체 간 신속 대응 협력체계 마련 ▲요일·시간대별 TOD 기반 세분화 신호전략 수립 ▲교통량이 적은 지역의 좌회전 감응신호, 보행자 작동버튼 확대 등 능동적인 교통신호 운영 전략 추진을 제안했다.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김현미 의원
소담동, 더불어민주당



재정 붕괴 초읽기 경고... “세종시 재정 개혁의 골든타임은 지금”

김현미 의원은 세종시 재정이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며, “지금이야 재정 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김 의원은 공공시설 유지관리비가 2025년 1,280억원에서 2030년 1,828억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시가 내년도 필요 예산 추계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지방세입은 2021년 8,771억원에서 매년 감소해 2025년에는 6,800억원대로 줄었고, 2026년 최대 500억원의 추가 감소 가능성까지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4년 기준 세종시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 1위이며, 내년에는 지방채 누적액 5,000억원을 넘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용액까지 더해지면 채무성 부담이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에 4대 혁신 전략으로 ▲재정력 강화 중심 목표 설정 ▲중기지방재정계획 기반 부채 총량 관리 및 신규사업 사전 부채 영향평가 의무화 ▲시책일몰제와 예산의 실질적 연동을 통한 지출 구조 효율화 ▲부채에 의존하지 않는 재원 확보 방안 마련과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안신일 의원
장군면·한솔동, 더불어민주당



초고압 송전선로, 세종시 9개 읍면동 관통... 시민 안전 위협”

안신일 의원은 한전이 지난 2025년 11월 6일 확정된 ‘최적 경과대역’을 언급하며 초고압 송전선로가 세종시 전역에 걸친 9개 읍면동, 52개 리를 관통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자파 위험, 경관 훼손, 생활환경 악화, 재산권 침해를 동시에 초래하는 시설이라고 우려를 전하며 이번 사업의 실질적 목적이 “수도권,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전력수요 지역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력 수송로 확보’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사업이 주민 동의 없이 강행되었다며, “의견 수렴 절차가 사후적이고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안 의원은 “전력 다소비 기업의 지방 이전 등 산업, 에너지 수요 분산 정책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세종시가 주민들의 의견에 응답하고 책임 있는 대응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김학서 의원
전의·전동·소정면, 국민의힘



성장 정체 극복위한 자족기능 강화 시급

김학서 의원은 출범 15주년을 맞은 세종시의 성장 정체와 읍면 지역 소멸 위기를 진단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자족기능 강화 3대 방안’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김학서 의원은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의 꿈을 안고 출범했지만, 15년이 지난 현재 인구 증가세가 둔화하고 북부권을 비롯한 읍면 지역의 소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민선 4기 최민호 시정이 이뤄낸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승인과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이러한 구조적 성과가 진정한 지역 발전으로 완성되려면 그 안을 채울 ‘사람’이 모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성장 기반 위에 사람을 불러 모으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낼 구체적인 방안으로 ▲읍면 지역 특수목적고등학교 신설 ▲로컬푸드 사업 고도화 ▲외부 관광 인구 유치 및 소비 선순환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현정 의원
고운동, 더불어민주당



노인 역량 살린 양질의 노인 일자리 확대 촉구

이현정 의원은 세종시 노인 일자리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역량 기반의 양질 일자리 확대와 선발 과정에서의 공정성, 접근성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전국 최초로 퇴직 경찰관의 경험을 살린 ‘시니어 폴리스’와 경로당 증식을 지원하는 ‘경로당 식사 도우미’ 사례를 언급하며 “노인일자리는 소득을 넘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통로”라고 강조했다.

또한 노인의 경력과 전문성 등 역량을 살릴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는 37% 정도의 비중에 머물러 구직 어르신이 선호하는 양질의 선택지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어르신의 역량과 경력에 걸맞은 양질의 노인일자리 발굴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비중 40% 이상 확대 및 국비 공모사업에 대한 전략적 대응 ▲역량 있는 기관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협력체계 구축 ▲선발의 투명성 강화와 객관적 관리 체계 마련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1차 접수 및 거동 불편자를 위한 ‘찾아가는 조력’ 도입 등을 제안했다.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홍나영 의원
비례대표, 국민의힘



“지속가능한 세종의 미래 위한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공직사회가 선도해야”

홍나영 의원은 지속가능한 세종의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에 공직사회가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세종시는 이제 행정 기능을 넘어 도시 고유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구축해야 하는 시점에 직면했다”며, 그 해법이 ‘친환경·탄소중립도시’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 프라이부르크 사례를 언급하며 “환경을 도시 경쟁력으로 만든 대표적인 도시”라고 설명하고, “세종시 역시 전국 최고 수준의 녹지 인프라와 5-1생활권 스마트시티 조성 등 충분한 잠재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잠재력만으로는 부족하며, 정책의 성패는 결국 실행과 현장 운영의 세밀함에서 결정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중교통의 날, 소등의 날 등의 사례를 들어 공직사회의 실천이 미흡한 점에 대하여 아쉬움을 전했다.

홍나영 의원은 “탄소중립은 선언이나 제도가 아닌 행동으로 완성된다”며, “공직사회가 선도하는 실천으로 시민과 함께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의 길을 열어가자”는 당부를 전했다.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김영현 의원
반곡·집현·합강동,
더불어민주당



“세종테크밸리 규제 사슬 끊고, 대법원 이전으로 행정수도 마침표 찍자”

김영현 의원은 세종테크밸리의 심각한 공실 문제를 지적하며, 업종 규제 혁신과 더불어 ‘대법원 세종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의 완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건물이 완공된 현시점에서 세종테크밸리 입주율은 절반 수준인 53%에 불과하다”며, “아울러 건물 임대 가능 호실의 약 45%가 공실로 방치되어 기업들은 이자 부담과 매각난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세종테크밸리의 공실 문제와 자족 기능 저하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으로 ‘대법원 세종 이전’을 제시하며 “입법과 행정 기능이 이전하는 상황에서 사법기능까지 조화를 이뤄야 진정한 행정수도가 완성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세종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며 ▲네거티브 규제 전환: 공해 시설 외 모든 업종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규제를 핵심으로 하는 관리계획 전환 ▲생활 밀착형 규제 철폐로 집현동 정주 여건 개선 ▲대법원 이전 관련 전략 TF를 구성해 사법부와 국회를 설득할 공론화 과정 및 청사진 마련을 핵심 대책으로 제안했다.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최원석 의원
도담동, 국민의힘



“행정수도 위상 흐드는 기관 이전 시도 즉각 중단해야..”

최원석 의원은 “세종시는 단순한 지자체가 아니라 지켜야 할 ‘국가 시스템’ 그 자체”라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국가 기관을 이전하려는 시도를 강력히 비판하고 행정수도 사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세종시는 수십 년간 막대한 예산과 사회적 합의로 구축된 ‘국가 행정의 심장’이다”라며, “정부의 방조 아래 다시 시작된 부처 뺏기 경쟁은 협업 붕괴와 국정 공백이라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해 결국 국민 전체에게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5극 3특’ 전략을 말하면서 컨트롤 타워인 행정수도를 빈 껍데기로 만드는 모순을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원석 의원은 우리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올곧게 하나 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부처 이전 문제를 국가 존폐의 문제로 다루는 결의안 채택 ▲정파를 초월한 정치권의 추가 이전 절대 불가 합동 선언 ▲부처 위치를 법률로 정하는 이전 방지 장치 마련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 등을 제안했다.

긴급현안질문

제10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김현미 의원
소담동, 더불어민주당



세종시 재정 위기 극복 위한 구체적 대책 강력 촉구

김현미 의원은 세종시의 심각한 재정 위기 실태를 지적하며, 세출 구조조정과 구체적인 재정 건전화 계획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시정 4기 공약 사업의 재원 조달 문제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공약 이행을 위해 확보한 전체 재정 확보율은 27.81%에 불과하다”며, “확보된 재정 3,317억원 중 74%인 2,446억원이 모두 시비로, 국비 또는 민간 재원 확보 노력은 미미하고 부담은 모두 시 재정으로 떠넘기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원 소요 규모가 가장 큰 10대 공약의 재정 확보율도 25.6%에 불과하며, 대다수 공약 사업은 확보된 재정이 전무해 줄줄이 보류되거나 폐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재정 위기 대응 방식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내년에도 736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재난 예비비는 절반으로 줄이며 재난관리구호기금마저 지방채로 전환했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1문1답을 통해 시가 이행 완료로 보고한 26개 공약 중 다수가 실제로는 기반 조성이나 계획 반영 단계에 불과하다며 ‘성과 부풀리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핵심 사업이 중단돼 반토막 난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나 3년째 첫 삽도 뜨지 못한 ‘한글문화수도’ 사업을 ‘정상 추진’으로 분류한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질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심각한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현실성 없는 공약은 과감히 포기하고, 빛으로 빛을 짚는 악순환을 끊을 구체적인 재정 건전화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산의 우선순위를 공약이 아닌 시민의 민생과 안전으로 전면 재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긴급현안질문을 마쳤다.

긴급현안질문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김효숙 의원
나성동, 더불어민주당



학교가 멀어질수록, 학습 격차는 벌어집니다

김효숙 의원은 세종시 고등학생들의 장거리 통학과 고교학점제 이동수업 실태를 점검하고, 이동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청과 시청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학생들이 하루 평균 두 시간 이상을 통학에 사용해 고교 3년 동안 1,470시간을 소모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는 곧 학습권 침해이자 학습 격차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먼저 세종시의 단일 학군과 7지망제 배정은 1지망 단계에서 통학권을 반영하지 않아 장거리 통학을 구조적으로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년 전 장거리 통학 문제가 지적된 학교들을 다시 살펴보았으나, 실질적 개선은 미미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이동수업 참여가 확대됐지만 거점학교가 동지역에 집중되어 조치원 등 외곽 지역 학생들이 1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는 문제점도 꼬집었다.

또한 시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지난 2년간 교육청과의 협의가 형식적 수준에 머물렀고, 읍면 지역 통학버스 개선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도청과 교육청이 협력한 춘천시 S-버스 사례를 제시하며, 세종에서도 교육청·시청이 협력해 이동 격차 해소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학생 이동은 단순한 교통 문제가 아니라 교육 기회의 기본 조건”이라며 “시청과 교육청이 협력해 고등학생 이동 격차를 줄이고, 어디에 사는지와 상관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긴급현안질문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김현옥 의원
새롬동, 더불어민주당



버려지는 학교급식, 이웃 위한 예비식으로 재탄생해야

김현옥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나눔 실천을 위한 '학교급식 예비식 기부 활성화'를 강력히 촉구하며, 세종시교육청과 시청의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세종시 관내 111개 학교에서 연간 3,220톤의 잔반이 발생했으며, 이를 처리하는 데에만 5억원 이상의 비용이 투입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제정했지만, 해당 조례는 현장의 우려와 소극적 행정으로 인해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현행 조례가 기부 대상을 '포장된 완제품'으로 한정하고 있어, 급식실에서 조리된 따뜻한 밥과 국은 위생 적임에도 불구하고 전량 폐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새롬고 환경동아리 '세바두'가 시민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응답자의 99%가 예비식 기부에 찬성했음을 강조했다. 또한,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해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을 절감한 우수 사례 선도 모델을 제시하며 세종시의 변화를 촉구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실질적인 예비식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 대상을 제한하는 조례의 '완제품' 문구 삭제 및 개정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세종형 학교급식 예비식 기부 표준 매뉴얼' 제작 ▲복지시설 인접 학교 대상 시범사업 즉각 실시 등을 교육청에 요구했다.

아울러 시 집행부에는 세종시 푸드뱅크와 공공급식지원센터의 냉동·냉장 차량 및 물류 인프라를 활용해 수거·운송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인력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긴급현안질문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김학서 의원
전의·전동·소정면,
국민의힘



“북부권 소멸 위기, 관행 탈피한 ‘진짜 해법’으로 정면 돌파해야”

김학서 의원은 세종시 북부권의 인구 소멸 위기를 경고하고, 관행적인 정책에서 벗어난 혁신적인 ‘4대 연결 전략’을 제안하며 시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12월까지 전의·전동·소정면의 인구는 11,161명에서 9,719명으로 약 12.9%(1,422명) 감소했다. 이는 단순한 감소를 넘어선 ‘지역 붕괴’ 수준으로, 소외된 세종시 읍면 지역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의견이다.

특히 김 의원은 “세종시 읍면 지역은 개발 기대감이 반영된 높은 땅값 때문에 청년들의 귀농, 귀촌 진입 장벽이 매우 높다. 단순 보조금 지급 방식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뿐”이라며 실질적인 비즈니스 모델 중심의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자본이 부족한 청년 창업농을 위해 시가 유희지를 매입·임대하여 저렴하게 빌려주는 방식을 도입하고, 주중 4일은 도시에서 일하고 주말 3일은 농촌에서 머무는 ‘4도 3촌 특구’를 조성해서 관계 인구를 확대하며, 정부청사 및 공공기관 구내식당에 전량 납품하는 조건으로 ‘계약 재배형 스마트팜 타운’을 조성해 판로 걱정 없는 생산 환경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김 의원은 북부권을 억지로 정착해야 할 곳이 아닌, ‘체류와 비즈니스, 힐링의 공간’으로 재정의할 것을 제안하며 “산업·주거·소비·이동의 4대 연결 전략을 통해 소멸해 가는 북부권이 다시 사람의 온기로 북적이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시정질문

제1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이현정 의원
고운동, 더불어민주당



**‘금남면 영대리 미군병사 구조 사건’
검증 부실 지적... 행정 신뢰성 강화 촉구**

이현정 의원은 ‘금남면 영대리 미군 병사 구조 사건’의 검증 부실을 지적하고 투명한 검증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6·25전쟁 당시 흑한 속에서 부상당한 미군병사 랠프 킬 패트릭을 숨겨 돌본 영대리 주민들의 이야기는 인류애와 용기의 상징으로 평가받을 만큼 감동적인 사례”라며, “그러나 현재 알려진 사건 내용이 불명확한 기록으로 이루어져 있어 사실관계에 혼선이 있다”고 전했다.

1950년 10월 2일 미국 언론 『The Charlotte News』는 한 한국인 가족이 부상당한 미군을 숨겨 돌보았다고 보도했다. 이후 1972년 『중앙일보』에서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소년 임창수 개인의 활약을 중심으로 기사를 재구성했다. 이 의원은 해당 보도 이후 개인의 서사 중심으로 언론보도의 내용이 굳어졌다고 설명했다.

반면, 1995년 발간된 『연기군 금남면 향토지』에서는 같은 일화를 ‘성하영과 임창수, 그리고 영대리 주민들이 함께 미군을 숨기고 보살핀 공동체적 행위’로 기록했다. 이 의원은 이점을 강조하며, 언론보도를 통해 공동체의 이야기가 개인적 서사로 축소, 왜곡되어 온 흐름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이 의원은 공문서·신문기사·사진자료·행정기록·구술자료 등 1차 자료 확보를 강화하고, 주민·후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검증위원회 또는 자문기구를 제도화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세종시가 역사, 보존, 문화사업 전반에 대해 사전 고증과 검증 절차를 제도화할 것”을 당부했다.

문제를 새로운 ‘대안’으로 치환하다



김은주 정책지원관

2026년 1월 30일, 국토안전관리원이 주관한 제5회 그린리모델링 챌린지 시상식이 서울 모처에서 마련되었다. 많은 수상자 중 익숙한 이름이 보인다. 세종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 정책팀 김은주 정책지원관이 그 주인공이다. 이날 우수상 수상자로 이름을 올린 김은주 지원관은 입법주무관으로 3년, 정책지원관으로 5년째 세종시의회에서 근무 중인 ‘정책 지원 베테랑’이다. 수상작 ‘상상그린(上想Green)’은 의정활동을 지원하던 그의 머리를 스쳐 간 수많은 아이디어 중 하나다. 현대사회의 문제적 이면을 새로운 대안으로 해석해 낸 김 지원관의 ‘정책 셈법’과 함께 정책지원관 업무의 면면까지, 그 내부를 살살이 들여다보자.



Q. 어떻게 지방의회라는 기관에서 일하게 되었는지?

A. 2017년경 법제처 통합입법예고센터 운영에 참여한 후 정책과 입법분야에 관심이 생겼다. 이후 세종시의 회 입법주무관 채용에 지원했고, 정책지원관이 없었던 때부터 의정 지원 업무를 시작했다. 입법주무관 도입 초기에는 공로를 인정받아 최초로 의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 이후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가 정책지원관이라는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게 되었고, 입법주무관 경력을 살려 정책지원관으로 지원해 채용되었다.

Q. 어떤 계기로 해당 공모전에 참여하게 됐는지?

A. 공모전에 늘 관심이 많은 편이다. 특히 선호하는 분야가 '정책아이디어 제안'이다. 내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다는 생각이 설레는 지점이랄까. 정책지원관도 그런 면에서 매우 적성에 맞는 편이다. 직접 제안하거나 개선할 부분을 어필한 뒤 실제로 개선되고 적용되는 과정들이 너무 부뚝하다. 정말 '일할 맛' 난다. 특히 이번 공모전 수상작은 산업건설위원회를 오래도록 지원하며 관심이 커졌던 건축과 환경 분야에 현재 지원 중인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인 사회적 약자와 복지 부재의 측면을 접목하여 나온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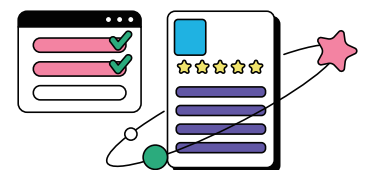
지자체에서 법정 기금을 설치하고 안정적인 추진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이 그린리모델링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예산과 환경 등 여건이 좋지 않고, 중요성을 부여하는 지자체도 적어 해당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의지도 부족한 것 같았다. 그래서 미래세대를 위한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커졌고, 이번 공모전에서의 정책 제안까지 이루어졌다.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기쁘다.

Q. 정책지원관의 업무가 이번 공모전 출품 및 입상에 영향을 준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A. 정책지원관 업무는 행정이나 사무와 같이 일반적인 공무원의 업무와는 조금 다른 속성이 있다. 다양한 정책과 사업의 내용을 단기간에 파악하고 종합해야 하는 특수성이 바로 그것이다.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을 접하다 보면, 서로 다른 성격의 업무를 접목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할 기회가 많다. 이런 사고의 흐름이 이번 공모전의 아이디어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겠다.

앞서 말한 것처럼 산업건설위원회를 지원했던 당시 세종시에서는 그린리모델링사업이 공공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민간 대상 지원이 부족해서 민간 업체들은 관심도 없는 상황이었다. 평소 아이들과 강아지를 키우면서 환경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었다. 그래서 환경녹지국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며 알게 된 우리 환경의 현주소가 더욱 현실적인 고민거리로 다가왔다.

그린리모델링은 건축과 설비 등 기술적인 요소를 활용해 궁극적으로는 환경을 살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에너지 성능 향상이 필요한 노후화 건축물을 개선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쾌적한 거주 환경을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의 관심이 적은 그린리모델링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래서 직장에서 보고 느꼈던 바를 토대로 그린리모델링이 실제 생활과 밀접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적용성에 초점을 맞춰 출품 제안서를 작성하게 됐다.



상상그린(上想 Green)

본 이미지는 선행현 시로 제작되었습니다.



환경, 공동체, 돌봄 통합 Green + Socail Remodeling

Q. 출품 작품에 대하여 소개해준다면?

A. 상상그린(上想Green)이라는 정책 아이디어다. 어린이의 상상과 어른의 화상이 만나 세대가 통합하는 그린리모델링을 구현하고자 했다. 고성능 단열재, 태양광과 같은 그린리모델링 기술을 기반으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는 통합디자인을 핵심으로 한다.

Q. 사회적 문제들이 모여 새로운 대안으로 탈바꿈하는 정책일 수도 있겠다.

A. 그렇다. 그린리모델링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세대 통합 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정서 결핍과 어른의 고독감을 동시에 완화할 수 있다. 더불어 쓰이지 않는 폐

업 위기 어린이집, 사용이 드문 경로당을 활용해 공간의 재생산도 도모한다. 지역 구석구석에 놓여있는 현대사회의 문제들, 이를테면 고령화와 저출생, 돌봄 및 공동체 붕괴, 고독사와 같은 어두운 현실을 친환경적 방법으로 재구축해 내고자 한, 하나의 '공간 정책'이다.





Q. 이번 입상을 계기로 정책 지원 업무에 임함에 있어 새롭게 다짐한 바가 있다면?

A. '세종시의회 소속'이라는 타이틀로 수상하게 되어 정말 기쁘다. 세종시의 특수한 도시 상황들은 어쩌면 다양한 실험무대로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입상을 계기로 집행부 직원분들과 더 자주 소통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들을 제안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다. 아울러 그러한 제안이 실현가능한, 영향력 있는 제도로 만들어지도록 의원님들과도 더욱 소통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결국 제가 할 일은 의원님들과 문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향을 찾아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공직자로서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것에 이바지하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비록 숨은 인력이지만 '살고 싶은 도시 세종시'를 위해 할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뛰겠다.

Q. 정책지원관을 꿈꾸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A. 입법주무관을 거쳐 정책지원관까지 정책 지원 업무 8년 차에 접어들었다. 경력이 길어질수록 매번 진지

하게 고민한다. '어떻게 하면 정책과 의정을 더 잘 지원할 수 있을까?' 그러나 성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적성이 맞아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평소 작은 일에도 관심을 두고 공부하는 자세가 필수적인 역량이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불편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는 의원님들에게는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창의성과 전문성을 키우고 확장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든 재밌게 일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Q.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틀에 박히지 않은 업무를 자주 하는 만큼 역동적이고 재미있는 요소들은 많지만, 그만큼 업무 스트레스도 있기 마련이다. 이를 공감하고 서로 이해하며 업무의 최전선에서 함께한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에게 감사하다. 그리고 늘 따뜻하게 웃어주고, 품어주는 우리 정책지원관들은 정말 든든하고 감사한 직장 동료이자 친구다. 이 자리를 빌려 오래 함께하자는 마음을 전한다.

고정과 변화의 중심에서

카페 호머



기다림의 그늘에서, 마음의 사육사



MUSIC IS MY WIFE ♡





조치원읍 충현로 72, 조치원 삼일아파트 앞 상가 어느 곳에서 귀를 간지럽히는 재즈가 흘러나온다. 쉽사리 추측할 수는 없는 걸모습을 하고 있어 입구를 찾기 쉽지 않았다. 카페 호머는 시각적인 표상보다, 어쩌면 원초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감각을 열어야 보이는 공간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감각을 열어야 '들리는' 공간이다. 해리포터가 마법사로서의 여정을 시작한 킹스크로스역 9와 3/4 승강장과 같이, 카페 호머는 전혀 있으리라고 예상할 수 없었던 곳에 마치 원래 있었고, 있어야만 했던 장소처럼 자리 잡고 있다.

2023년 6월, 이곳은 '출근이 편했으면 좋겠다'는 조치원 토박이 사장님의 단순한 생각으로 탄생한 공간이다. 그리고 더해, 이 젊은 사장님은 오직 재즈를 듣고 즐기기 위해 운영되는 일본다방 '재즈킷사텐(ジャズ喫茶店)'처럼, 세종에도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바람을

카페 호머에 담았다. 음료에 재즈의 가치를 더해 제공하는 재즈킷사텐은 운영 주체의 연령도 다양하거니와, 지역에 국한됨 없이 일본 전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재즈를 사랑하는 이라면 누구나 운영할 수 있고, 누구나 즐길 수 있다. 이처럼 수도권에 찾아가야만 누릴 수 있는 문화가 아니라, 친숙한 동네에서 어느 날 저녁을 먹고 밤 산책을 하다가 문득 만날 수 있는 일상의 한 부분으로 재즈가 자리 잡길 바랐다.

카페 호머에 들어서면 턴테이블 위에서 돌고 있는 엘피판이 제일 먼저 방문자를 반긴다. 귀는 즐거워지고, 빼곡하지만 나름의 질서가 있는 도서들로 눈과 상념도 이내 즐거워진다. 세계문학전집, 이상문학상작품집에 이어 안톤 체호프, 무라카미 하루키와 베르나르 베르베르 같은 거장들이 쌓아 올린 세계관도 작은 책장 위에 겹겹이 쌓여 있다. 어떤 책이든 상관없다. 무작위로 책을 골라 손에 잡

히는 페이지를 펼치면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진 한 면에서 생각의 물꼬를 띄워줄 농염한 문장 한 줄을 언제든 만날 수 있다.

주인장은 카페 호머와 재즈가 가지는 공통점이 '고정과 변화가 공존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즉흥 연주가 장르적 특색인 재즈는 같은 곡이라도 여러 테이크(Take)가 존재한다. 고정된 코드 진행 위에 매번 달라지는 호흡이 켜켜이 쌓인다. 카페 호머도 '호머'라는 하나의 이름 아래 시간이 흐르고, 매일 다른 손님, 매일 다른 대화, 매일 다른 사건이 쌓이는 공간이다. 그렇게 호머 Take1부터 시작해, 수많은 얼터네이티브 테이크(Alternative Take)¹⁾가 하나의 '호머'를 구성한다. 계획과 즉흥, 고정과 변화의 중심에서 카페 호머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닌, 작은 동네의 하루하루가 지속하고 쌓이는 하나의 맥락으로 거듭난다.



카페라떼 ©카페호머



파운드 위에 블루베리 콤포트 ©카페호머

카페 호머가 가진 또 다른 차별점은 손님과 주인 사이에 '친밀한 벽'이 있다는 점이다. 다소 모순적인 단어지만, 이곳에서 주인장은 그저 음료와 재즈를 제공한다. 다시 말해서, 손님에게 아주 친절한 방식으로 관심이 없다. 어떤 책을 보든, 몇 시간을 앉아 있든, 혼자 왔든, 여러 명이 함께 왔든 상관없다. 단지 음료와 재즈를 음미하고, 방문자 역시 카페 호머를 그들의 하루 중 일부로 가져가길 희망할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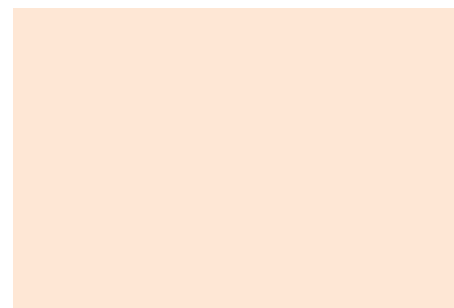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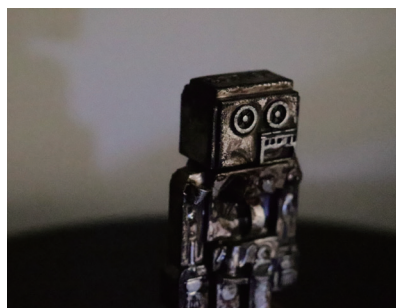
사장님은 재즈에 입문하고 싶다면 챗 베이커의 곡을 들어보길 추천한다고 전했다. 그 대답과 함께 턴테이블에서 「You're Mine, You」가 곧바로 흘러나왔다. 조용한 공간을 아주 작게 바스러지는 속삭임이 채우기 시작했다. 햇빛이 미세한 먼지까지 조명하는 늦은 오후, 나른해진 한낮이 노래와 함께 내려앉았다.

1) 앨범에 수록된 '마스터 테이크(Master Take)' 이외에 다른 시도(試圖)의 연주를 담고 있는 녹음본.



카페 호머는 이곳에서 ‘오래 머무를 생각’이다. ‘그냥 뭔가 해볼까?’ 하는 가볍고 스쳐 지나가는 마음으로 연 곳이 아니라고 했다. 진심으로 좋은 재즈가 카페 호머에, 세상에 일상처럼 자리하길 희망하며, 사장님은 오늘도 손님들의 낮과 밤을 수놓을 음반을 찾아 헤매고, 발굴하고, 수집하는 중이다.

건조하고 찬 공기가 막 깨어난 땅의 열기와 만나 아지랑이로 피어오른다. 4월에는 카페 호머에서 따사로운 햇볕처럼 공기를 부유하는 재즈를 만나보자. 조치원 삼일아파트 앞 상가 어느 ‘마디’에서 카페 호머만의 음표가 사소하면서도 잊히는 않을 봄의 아지랑이를 그려내고 있다. 글·사진_김영주





2025년 의정모니터 성료, '시민 참여 기반 강화'

날카롭고 실효성 있는 시민불편사항, 제도개선 의견 개진



2025년 12월 19일 제4기 의정모니터 2025년 성과보고회



2025년 3월 20일 제4기 의정모니터 전체 간담회

세종시의회는 2024년 2월, 시민 참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의정모니터단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선발했다. 같은 해 5월 위촉식을 가진 제4기 의정모니터단에는 10대 부터 시작해 8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의 시민들이 선발됐다. 특히 거주 지역 또한 균등하게 분포하도록 모니터단을 선발해 세대 간 균형과 지역 간 형평을 도모했다.

2025년 3월 20일, 제4기 의정모니터단은 간담회에서 운영계획을 안내받은 후 5월 20일부터 열린 정례회 일정에 맞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제4대 의회 후반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시민의 관점에서 시정과 교육행정 운영, 의정활동을 꼼꼼히 살펴보고, 그 어느 때 보다 더 활발하게 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8월 한 달간 행정복지분과, 산업건설분과, 교육안 전분과에서 각각 성과보고회를 열었으며, 결산 및 행정 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했다. 하반기에는 추가 경정예산안과 내년도 본예산 심사 과정에도 참여하며 날 카롭고 실효성 있는 시민불편사항, 제도개선 의견을 개 진했다.

쉽없이 의정활동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달려온 제4기 의정모니터단은 2025년 12월 19일 '2025년 제 4기 의정모니터 성과보고회'를 끝으로 활동을 매듭지었 다. 이날 참석자들은 2025년 한 해 동안의 의정모니터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을 긴밀하 게 살펴보며 시민의 시선에서 정책과 행정을 점검했던 순간을 되돌아봤다.

특히 이날 성과보고회에서는 활동 기간 우수한 성과를 낸 의정모니터 12명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수상자들은 "시민의 목소리가 실제 의정에 반영되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어 보람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과 의회의 가교가 되는 의 정모니터단과의 협력을 통해, 시민의 일상에서 출발하 는 정책개발과 함께 성숙한 의정 기반을 마련해 나갈 방 침이다.

세종에서 놀자, 쉬자

세종에서 놀자, 쉬자

향긋한 바람이 포근한 공기를 타고 일렁입니다.
집에만 있기는 너무 아쉬운 계절,
만개한 꽃들이 물결치며 세종에 흩날립니다.
지루할 틈 없는 봄 축제 현장으로 다 함께 떠나볼까요?

연극 〈그때도 오늘2: 꽃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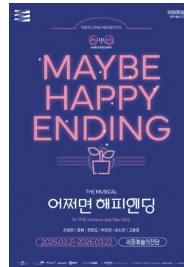
무엇을? 1590년부터 2020년대 까지, 시대와 인물을 관통하는 상징적매개 '꽃신'을 통해 여성들의 보이지 않는 연대를 만나보세요.

* 예매 필요

언제? 2026년 3월 27일 19:30 / 28일 15:00
어디서? 세종예술의전당
가격은? R석 40,000원
S석 30,000원
시야제한석 15,000원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무엇을? 가까우면서도 먼 미래, 인간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헬퍼봇 '올리버'와 '클레어'가 가장 인간적인 감정 '사랑'을 알아 가는 과정이 섬세하고 따뜻한 뮤지컬로 펼쳐집니다!

* 예매 필요

언제? 2026년 3월 21일~22일 14:00, 18:30
어디서? 세종예술의전당
가격은? R석 90,000원
S석 80,000원
시야제한석 70,000원



가족뮤지컬 〈넘버블록스〉



무엇을? 무대에서 펼쳐지는 숫자들의 놀라운 모험 이야기! 멋진 모험과 신나는 노래로 놀라운 숫자 마법을 경험해 볼 시간!

* 예매 필요

언제? 2026년 4월 4일~5일 11:00, 14:00, 16:30
어디서? 세종예술의전당
가격은? R석(1층) 70,000원
S석(2층) 60,000원



의정주요뉴스

세종시의회, 2026년 신년화두는 '승풍파랑'

2025. 12. 24.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025년 12월 24일, 2026년 병오년(丙午年) 신년 화두로 사자성어 '승풍파랑(乘風破浪)'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승풍파랑'은 바람을 타고 거센 물결을 헤쳐 나간다는 뜻으로, 강한 추진력과 용기, 원대한 포부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비유한 말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시대적 흐름을 바람 삼아 여러 난관과 우여곡절을 뚫고 나아가되, 방향을 잃지 않고 행정수도 완성을 향해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다는 의지를 이번 신년 화두에 담았다고 밝혔다.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은 "민생의 어려움과 국제 정세의 불안정, 정치적 혼란이 겹치며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지만, 세종시민의 성숙한 참여와 연대 속에서 세종시는 더욱 단단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2026년 병오년에도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오직 시민의 뜻을 기준으로 삼아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며, "승풍파랑의 의지로 행정수도 완성을 향해 시민과 함께 멈추지 않고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026년 1월 2일 오전 8시, 총령탑을 찾아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참배를 진행하며 2026년 병오년 새해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참배에는 임채성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의회사무처 간부들이 함께 하여,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시민을 향한 책임과 공직자로서의 사명을 되새기고 새해 의정활동에 임할 각오를 다졌다.



이어 10시에 세종시의회는 의원과 의회사무처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병오년 시무식을 개최했다.

시무식에는 의원과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해 새해 의정 운영 방향과 목표를 공유하며, 39만 세종시민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할 '일하는 의회' 구현에 뜻을 모았다.

임채성 의장은 "2026년 병오년을 맞아 세종시의회는 '승풍파랑(乘風破浪)'의 각오로 변화의 흐름을 주도하며 의원과 직원이 하나로 힘을 모아 행정수도 완성과 민생 회복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채성 의장은 "2026년 병오년을 맞아 세종시의회는 '승풍파랑(乘風破浪)'의 각오로 변화의 흐름을 주도하며 의원과 직원이 하나로 힘을 모아 행정수도 완성과 민생 회복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년 병오년 새해 출발...총령탑 참배·시무식 개최

2026. 1. 2.

의정주요뉴스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로 지역 경제 활성화 실천

2026. 2. 13.



2026년 설 명절을 앞두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2026년 2월 12일과 13일 양일간 관내 전통시장을 찾아 '설맞이 장보기 행사'를 추진했다.

이번 행사에는 시의원과 사무처 직원 50여 명이 참여했다. 행사에 동참한

의회 구성원들은 12일 금남면 대평시장 방문에 이어 13일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에도 방문해 제수용품과 명절 선물 등을 구매하며 상인들과 따뜻한 덕담을 나눴다. 특히, 의원들은 직접 장바구니를 들고 점포 곳곳을 살피며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의 고충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장보기 행사와 더불어 관내 사회복지시설 위문 활동을 병행하는 등 소외계층을 살피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2026년 자체법제교육 본격 추진

2026. 2. 25.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026년 2월 25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자체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6년 7월 예정인 제5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개원을 원활하게 준비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의회사무처 직원의 의정 지원에 대한

업무능력을 체계적으로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새롭게 개원하는 제5대 의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회의 운영, 안건 처리, 의사진행 절차 등 의정지원 핵심 업무 전반에 대한 실무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경상북도의회 정책지원담당관 김선희 서기관이 강사로 나선 이날 교육은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지방자치법에 따른 회의 운영 원칙 ▲의안 처리 절차 및 의사진행 실무 등의 세부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임채성 의장은 "이번 자체법제교육을 통해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새 의회가 안정적으로 개원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이번 1차 교육을 시작으로 상반기에는 의정지원 실무과정과 관련 법·제도 등을 집중교육하고, 하반기에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결산 대비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단계적인 자체 법제교육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입법정보

75	I 생활법령
80	II 주요입법동향
84	III 법령해석사례
86	IV 최근시행법령
88	V 타 지자체 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I 생활법령

사례1 회사 임직원에게 준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에 해당되나요?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솔로몬의 재판)

A사는 직원 복지를 위해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임직원들은 매년 20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부여받습니다. 해당 복지포인트는 도서, 건강관리 등 지정된 항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현금화 또는 양도가 불가능하고,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됩니다.

A사는 복지포인트가 실질적인 소득으로 귀속되지 않는다고 보고,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근로소득세액과의 차액을 환급해 달라고 하였지만, 과세관청은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A사는 과세당국을 상대로 징수한 근로소득세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라 회사 임직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① A사:
 “우리는 복지포인트를 일종의 사내 복지 혜택으로 운영할 뿐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항목도 엄격히 제한되고, 사용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되는데 이걸 소득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나요?”

② 과세관청
 “직원들이 그 포인트로 실제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습니까?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써 회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설령 사용에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복지포인트 자체가 근로를 전제로 지급된 급여성 이익이라면, 이는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으며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정답은 2번

과세관청: “직원들이 그 포인트로 실제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습니까?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서 회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설령 사용에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복지포인트 자체가 근로를 전제로 지급된 급여성 이익이라면, 이는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으며 과세 대상이 됩니다.”

위 사례는 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한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구「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39726 판결 등 참조)”는 법리를 바탕으로 “...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원고가 소속 임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배정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서,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위 임직원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는 해당한다”고 보면서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건강관리, 자기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일정 기간 내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양도가 불가능하기는 하나, 그렇더라도 정해진 사용기간과 용도 내에서는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여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들이 복지포인트를 사용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선택적 복지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제1항에서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하고 있으나, ... 이는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아닌 후생 등 기타의 근로조건까지 모두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제외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제1항을 근거로 근로복지와 근로조건을 양립불가능한 개념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두34122 판결).

따라서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이 사례에서 회사 임직원에게 준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판단된다고 할 것입니다.



평결일 : 2026년 1월 16일

참조판례 :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두34122 판결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I 생활법령

사례02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분양권을 잠시 보유했다가 처분한 경우, 무주택 요건을 상실하여 퇴거해야 할까요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솔로몬의 재판)

공임차씨는 2006년부터 ☆☆주택공사에서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며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 왔으며, 2019년 말에 다시 2년 동안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임차인은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공임차씨는 임대차계약 기간 중이던 2021년 봄에 분양권을 한 차례 취득하였다가 약 두 달 후 이를 곧바로 매도하였습니다. 같은 해 10월, ☆☆주택공사는 2018년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근거로 공임차씨가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공임차씨가 소명을 제출하지 못하자, ☆☆주택공사는 12월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공임차씨에게 퇴거를 통보하였습니다.

과연 ☆☆주택공사의 조치는 타당한 것일까요?



① 공임차씨:

분양권은 잠시 보유했다가 매도했는데, 이를 이유로 무주택 요건을 상실했다고 보는 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또한 제가 거주한 임대주택은 2006년에 공급됐고, 분양권 소유를 주택 소유로 본다는 규정은 2019년 임대차계약 갱신 전인 2018년부터 시행된 규정이므로, 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임대차계약 해지는 부당합니다.

② ☆☆주택공사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2018년부터 시행되었고, 공임차씨가 분양권을 취득한 시점은 개정 규칙 시행 이후인 2021년이기 때문에 공임차씨의 경우에는 분양권 소유를 주택 소유로 본다는 규정이 당연히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임차씨는 임대차계약 기간 중 분양권을 취득한 시점에 이미 무주택 요건을 상실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 해지와 퇴거 통보는 타당합니다.

정답은 1번

공임차씨: 분양권은 잠시 보유했다가 매도했는데. 이를 이유로 무주택 요건을 상실했다고 보는 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또한 제가 거주한 임대주택은 2006년에 공급됐고, 분양권 소유를 주택 소유로 본다는 규정은 2019년 임대차계약 갱신 전인 2018년부터 시행된 규정이므로, 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임대차계약 해지는 부당합니다.

위 사례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분양권을 잠시 보유했다가 처분한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 및 재계약거절 사유인 주택 소유로 간주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다284418 판결).

1.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2020. 9. 8. 대통령령 제31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제4호에서는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를 해제·해지 또는 재계약 거절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2020. 10. 19. 국토교통부령 제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별지 제5호, 제6호, 제7호 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에서도 시행령 조항 사유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주택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에 관해서는 위 법령 조항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해당 조문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야 임대인이 그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65171 판결 참조).

2. “분양권을 주택 소유로 본다”는 규정 및 경과규정

- 2018. 12. 11. 국토교통부령 제565호로 개정된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3. 5. 10. 국토교통부령 제1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공급규칙’이라 한다) 제53조 본문에 분양권등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그 부칙 제3조는 “제5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양권등부터 적용한다”(이하 ‘경과규정’이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여기서 경과규정을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해석할 것인지 또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양권’으로 해석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구 주택공급규칙 제

53조의 적용범위가 달라진다. 이 규정은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공공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 ① 경과규정과 같이 구 주택공급규칙에 마련된 부칙은 주택의 공급에 관한 입주자 자격요건 등 세부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시점과 실제 입주자모집 시점 사이에 차이가 발생함을 고려하여 그 규칙의 적용 시점을 정하기 위해 둔 규정이다. 이와 같이 경과규정은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된 시점 중 하나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경과규정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부분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시점을 의미하거나 이를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구 주택공급규칙이 시행된 이후에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계약이더라도, 규칙 시행 전에 있었던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을 통하여 임대주택에 입주한 임차인에게는 위 규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위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이 있었던 임대주택에 입주하였다면 비록 위 규칙 시행 이후 다른 주택에 관한 분양권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는 없다.



평결일 : 2026년 2월 6일

참조판례 :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다284418 판결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II

주요입법동향

1. 최근공포법령

1. 물환경보전법

[공포 '26. 2. 19. / 법률 제21368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새로운 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고시도 록 하고,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하천·호소 유입 여부를 매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누적 관리 및 공개하 도록 하며, 낚시금지·제한구역에 대한 변경 및 해제의 근거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 도록 하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의 상 한을 6개월로 설정하려는 것임.

2. 지방세징수법

[공포 '26. 2. 5. / 법률 제21327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업에 필요한 기구 등의 재산은 종전에는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 압류할 수 없도록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체납자가 체납액 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압류할 수 없도록 '압류금지 재산'으로 변경하고, 체 납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보청기 등의 신체보조기구 및 재해의 방지 또 는 보안을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 설비, 피난시설 등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민사집행법」상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압류금지 취지를 명확히 함으로 써 체납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3. 농어촌특별세법

[공포 '26. 1. 27. / 법률 제21314호]

개별소비세·증권거래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의 본세(本稅)에 부가(附加)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성격 을 고려하여, 해당 세법에 따라 본세가 납부유예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납부유예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과세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청년미래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가 신 설됨에 따라, 청년미래저축을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2. 최근 국회 본회의 통과(주요법안)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현재 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은 관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이격거리 규제의 편차가 크고, 과도한 규제로 인해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가 제한되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한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혼용하여 사용됨에 따라, 신에너지가 재생에너지인증서(REC)를 발급받는 문제가 생기고, 재생에너지 관련 통계에도 신에너지가 포함되어 혼선을 가져오는 등 부작용이 지적되고 있음.
- 이에 수소, 연료전지,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서 삭제하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제명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변경하는 등 재생에너지 관련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명, 제27조의3 신설 등)

2.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소비자의 혼선을 유발할 수 있는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자 부담 비용을 지정심사 비용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를 개선함(안 제20조의2 등).
- 또한, 위해정보 관련 비밀누설 금지의무의 예외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을 규정함으로써, 위해물품 등을 관장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해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제5항 단서 및 제6항 신설).
- 한편, 피해구제 절차 기간 연장 시 당사자 등에게 연장사유 및 기한을 통지하도록 하도록 하고, 분쟁조정 절차에서 단독조정제도를 도입하며, 사업자의 거부로 조정이 불성립된 사건 등에 있어서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분쟁조정절차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함(안 제63조의3 및 제68조의5 신설 등).

3. 최근 국회 접수 법안(주요법안)

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의원 등 11인)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의 임명 방식, 의무와 책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 임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임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는 임원의 임기를 법률에 명시하여야 하고, 지방자치 사업의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임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를 통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토록 하며,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의 임명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종료되면 해당 임원의 임기도 3개월 후 종료 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등 10인)

- 행정기관의 민원 현장에서 폭언·폭행, 흥기 소지, 반복적·지속적 문제 민원 제기 등으로 인해 민원 처리 담당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은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이러한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하였을 때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 역시 미비한 실정임.
- 이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호출장치·보호조치 음성안내 등 안전장비의 설치와 안전요원 배치, 폭언·폭행 방지 및 증거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장비와 녹음전화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폭언·폭행·흥기 소지·반복적 민원 제기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해 퇴거 또는 출입·전화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및 치료조치를 구체화하였음.

4. 최근입법예고(주요법령)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등 10인)

[의견제출 '26. 2. 28.까지]

- 현행법은 제2조제4호 단서에서 중대시민재해의 요건인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에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하고 있음.
- 그런데 학교가 주민에게 개방하는 실내 수영장 및 체육관 등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에도 역시 교육과 관련한 시설이므로 현행법 제2조제4호 단서의 취지에 따르면 그 역시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그러나 현행법 해석상 그 제외 여부가 다소 불명확하여 주민이 안전사고 당할 경우 학교장이 처벌 당할 수 있단 우려로 학교의 활발한 시설 개방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학교가 학생 또는 교직원 외의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실내 체육시설도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2조).

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등 11인)

[의견제출 '26. 2. 26.까지]

- 현행법은 동물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학대 등의 범죄전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동물의 사육을 금지하거나 피학대동물을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해 동물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동물학대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동물사육금지처분 및 동물사육금지처분 제도를 신설하고, 사육금지위무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며, 동물학대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동물 분양을 제한하고,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의무화함으로써 동물학대 재발을 방지하고 동물보호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등).

III

법령해석사례

질의(법제처-25-0736 / 회신일자 '26. 1. 28.)

- ① 인터넷 등으로 9명 이하의 수강생을 모집하여 대면으로 교습하는 시설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

질의요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2조제1호 본문에서는 '학원'을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 10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인터넷 등으로 9명 이하의 수강생을 모집하여 대면으로 교습하는 시설이 학원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학원에 해당하는지?

회답

인터넷 등으로 9명 이하의 수강생을 모집하여 대면으로 교습하는 시설은 학원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학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 먼저 학원법 제2조제1호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는 '학원'을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10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지식·기술 등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10명 이상의 학습자'를 교습 대상으로 하는 경우란 같은 시간에 대면으로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

명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9명 이하'의 수강생을 모집하여 대면으로 교습하는 경우가 같은 시간에 10명 이상의 학습자를 교습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명확합니다.

그렇다면 9명 이하의 수강생을 모집하여 대면으로 교습하는 시설의 경우가 '불특정다수의 학습자'를 교습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하는데, 학원법령에서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의 의미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통상적으로 '불특정다수'는 특정되지 않은 임의의 2명 이상의 사람을 의미하고, '불특정다수의 학습자'는 학습자별로 교습 시간과 장소가 상이하여 같은 시간에 교습하는 학습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원격 교습의 경우에 적용(각주: 대전지방법원 2016. 9. 7. 선고 2016노248 판결례(확정) 참조)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인터넷 등으로 수강생을 모집하였더라도 원격 교습이 아닌 경우로서 9명 이하의 학습자를 대면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불특정다수의 학습자'를 교습하는 경우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그리고 학원의 정의규정에 관한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구 학원법(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제2조제1호에서는 종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로 규정하였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로 개정(각주: 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일부개정된 구 학원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하여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학원의 교습행위에 포함시켰는데, 이는 온라인 강의업체 등에 대해서도 학원법에 따라 강사자격, 강의내용 및 교습비 등 관련 규정을 적용하려는 취지(각주: 2011. 6. 28. 의안번호 제1812398호로 발의된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이유 참조.)인바, 대면으로 교습하는 시설임에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수강생을 모집하였다는 이유로 학원의 범위에 포함시켜 학원법령의 규율 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인터넷 등으로 9명 이하의 수강생을 모집하여 대면으로 교습하는 시설은 학원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학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 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법제처 정부입법지원센터 법령해석사례

IV

최근시행법령

1. 국가표준기본법

[타법개정, '26. 2. 19. 시행]

- 국가 전반의 규제 정책을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민관협력이 강화된 규제합리화 추진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현행 '규제개혁위원회'의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여 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며, 부위원장 직위 신설 및 간사 변경, 민간위원 규모 확대 등 조직 구성 등을 전면 개편하려는 것임.

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26. 2. 12. 시행]

-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유치원을 폐쇄할 때 폐쇄절차 및 유아의 전원조치 계획을 보호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보호자에게 통지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후에 폐쇄를 인가하도록 함으로써 보호자가 유치원의 폐쇄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유치원 원장이 건강검진 실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어린이집의 경우 원장이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영유아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검진결과 통보서 제출을 요구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어린이집 원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유치원 원장이 유아의 보호자에게 3회 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3. 국가데이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정, '26. 2. 2. 시행]

-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로 격상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시행)됨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절차 및 그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4. 소방사업법

[타법개정, '26. 2. 1. 시행]

-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의 예방·대비·대응과 산림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의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산림청장 및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 및 지역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

5.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 '26. 1. 24. 시행]

- 디지털의료제품의 제조·수입 등 취급과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고 품질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디지털의료제품의 발전에 이바지함.
- 디지털의료제품을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및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로 정의하고, 디지털의료제품의 사용목적과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危害性) 등의 차이에 따라 디지털의료제품을 분류하여 등급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6.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정, '26. 1. 22. 시행]

-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20676호, 2025. 1. 21. 공포, 2026. 1. 22. 시행)됨에 따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지정 절차, 고영향 인공지능 등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방안,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확인 절차 및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의 책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포항시 해병문화 진흥 기본조례

[제정, 시행 '26. 2. 19.]

제안이유 포항시는 해병대와 연관된 역사·정신을 지역자산으로 확산하여 공동체 결속과 시민 참여를 높이고, 해병문화 진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본 이념에 관한 사항(제2조)
나. 진흥사업에 관한 사항(제7조)
다.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제8조)

2. 고양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 조례

[제정, 시행 '26. 2. 13.]

제안이유 고양시 사회경제적 취약가구의 경우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으로 인해 기본적인 돌봄과 의료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실정임. 반려동물이 가족 구성원의 한 형태로 자리 잡고 있음에도 경제적 여건의 차이가 반려동물 건강권의 격차로 이어져 사회적 약자의 정서 안정과 삶의 질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반려동물의 건강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진료비·돌봄 위탁·장묘 등 필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업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제2조)
나. 지원사업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제4조~제5조)



3. 원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 시행 '26. 2. 13.]

제안이유 급증하는 야간관광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주시만의 야간 관광 브랜드를 구축하고 관광객 유입 증대를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제1조~제2조)
나.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제4조)

4. 천안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시행 '26. 2. 2.]

제안이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천안시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숲길 주변 자원의 효율적인 보전 및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제2조)
나. 숲길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제4조)
다. 숲길의 휴식기간제에 관한 사항(제9조)

세종시의회 2026년 상반기 회기 일정 안내

1월 (임사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신정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제103회 임시회 : 1.28.(수) ~ 2.6.(금)
-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조례안 등

2월 (임사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보통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설 연휴 : 2.16.~2.18.(3일)

3월 (임사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상임위원 대체유무	2 대체유무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제104회 임시회 : 3.11.(수) ~ 3.23.(월)
- 시정질문, 조례안,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4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 4월(예정)
※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기간 : 4.4.~4.23.

5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어린이날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31	25 대체유무	26	27	28	29	30

* 부처님 오신날

6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3 지방선거	4	5	6 반중일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6.3.(수)

■ 본회의 예정일 ■ 위원회 예정일
※ 기본일정은 의정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운영 미디어 채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시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온라인 미디어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누리집과 유튜브를 통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가 생중계되고 있으며, 유튜브에서는 각종 홍보영상 또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블로그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는 간편하고 빠르게 세종시의회 소식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많은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누리집
<https://council.sejong.go.kr>



블로그
<https://blog.naver.com/sejongcitycouncil>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councilsejong>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sejongcouncil>



유튜브
<https://www.youtube.com/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SEJONG CITY COUNCIL

시민 필자 모집 안내

계간 『세중의정』에서는 역량이 뛰어난 시민 필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시, 포토에세이, 수필 등 어떤 형식이든 가능합니다. **시의회 방청이나 방문, 의정활동에 관련된 이야기**를 가감 없이 전달해 주실 분, **세종시와 관련된 이야기**를 흥미롭게 서술해 주실 분, 가장 일상적인 시선으로 **우리 동네 이야기**를 새롭게 풀어내 주실 분 등 숨은 작가님들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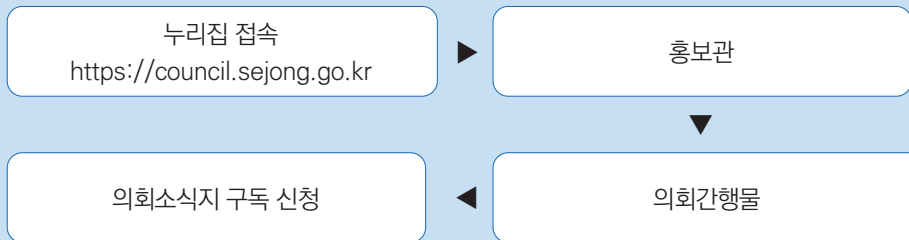
- ☑ 이메일 제출 시 한글 혹은 워드 파일로 작성 바랍니다.
- ☑ 포토에세이 제출 시 사진 원본(5MB 이상 고화질, 스마트폰 촬영 지양) 파일을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 ☑ 선정된 분들께는 별도로 화신해 드립니다.
- ☑ 채택된 글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 ☑ 원고 분량은 200자 원고지 10매 내외(포토에세이 시 5매 내외)입니다.
- ☑ 적합한 원고가 없을 시 미선정되어 게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내실 곳

우편 (우)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층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소식지 담당자 앞
전화 044.300.7248 팩스 044.300.7219 이메일 yjk78901@korea.kr

소식지 구독 신청

세중시의회는 누리집을 통해 소식지 구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구독을 원하는 시민께서는 아래 경로로 구독을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종 특별자치시의회
SEJONG CITY COUNCIL